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서 도 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서 도 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 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릭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 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현정보센터 장 /
『토릭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종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2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서 도 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하버마스의 사회사상을 의식 패러다임에서 언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준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본다면 본 연구서의 분석 대상 문헌인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은 그의 전기 사상을 대표하는 저작이다. 이 저작을 시종일관 퀘뚫고 있는 주제는, 칸트적 전통의 인식 비판은 오직 실천적 의도를 지닌 사회이론의 형태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은 하버마스가 이미 『이론과 실천』(*Theorie und Praxis*)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인식론의 수준에서 그 테마는 이제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으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하면 인식은 인간의 실천적인 삶의 세계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론의 발생 연관과 적용 연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옛 비판이론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작의 키워드 중 하나인 인식주도적 관심의 기반이 되는 삶의 행위가 노동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옛 비판이론의 협소한 노동 패러다임의 전통을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버마스에게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행위 유형은 이후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과 언어철학적 전화를 거치면서 그의 후기 사상, 즉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근본 개념으로 안착하게 된다.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은 인식 비판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 현대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폭로,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과학을 비판지향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지금까지 창출한 경험분석적 과학을 포함한 3가지 과학적 인식 유형이 각각 지배에 대한 기술적 관심을

포함한 서로 다른 유형의 3가지 인식적 관심에 뿌리박고 있다는 그의 핵심 주장은 결국 비판이론을 사회인식론으로 정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술적으로 처리, 사회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권력과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는 비판과학의 수립으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 <토론팩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의 결과 중 일부이다. 프로젝트의 이름대로 그 최종 결과는 웹상에서 텍스트에 대한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가 구현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서는 그 최종 결과의 콘텐츠라는 위상을 갖는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수행되어온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객원연구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막상 연구서를 제출하고 나니 필자의 연구 결과가 초심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 연구서는 제법 두툼한 분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 아닌 필자로서는 필자의 소속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으므로, 막상 집필을 하려다 보니 그간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 소화하기에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그리고 이 연구서의 분석 대상 문헌인 『인식과 관심』의 현존 국역번역본을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연구서의 제 3부인 철학 문헌 내용 분석 연구의 경우, 큰 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세부 항목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설명 및 인용 부분이 다소 늘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식과 관심』의 전체적인 기획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 연구서의 내용 지식 지도만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원전에 나타난 하버마스의 설명이 지나치리만큼 상세한 부분도 많으므로 자칫 분량에 신경을 쓰다가는 이 연구서가 쓸데없는 중언과 부언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다. 그러나 이 연구서의 철학 용어 지식 지도에 나타난

‘비판’(critique)과 ‘해방’(emancipation)이라는 주요 용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원전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천착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보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쉬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연구서를 제출하면서 독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부디 이 연구서가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의 모든 내용을 다 소화했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억측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필자의 소망은 그저 이 연구서가, 하버마스의 전기 사상에 나타난 비판으로서의 사회인식론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으면 할 따름이다. 끝으로 필자와 같은 몇몇 교수급 공동연구원들, 연구소 소속의 많은 박사급 전임 연구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석박사 과정의 보조연구원들을 독려하면서 수 년 동안 연구 과정 전체를 기획, 관장해온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백종현 교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2006년 5월
배봉산 자락에서
서도식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위르겐 하버마스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1
1.3 생애 연보	12
1.4 저작	14
1.4.1 이론과 실천	14
1.4.2 인식과 관심	15
1.4.3 의사소통행위이론 1/2권	15
2. 『인식과 관심』 해제	17
2.1 『인식과 관심』 요약	17
2.2 『인식과 관심』 해설	18
2.2.1 인식 비판의 위기	18
2.2.2 경험분석적 과학과 기술적 관심	21
2.2.3 역사해석적 과학과 실천적 관심	24
2.2.4 비판지향적 과학과 해방적 관심	26
2.3 『인식과 관심』 상세 목차	29
2.4 주요 용어	30
2.4.1 인식	30
2.4.2 관심	30
2.4.3 비판	31
2.4.4 해방	32

제2부 철학 지식지도	35
1. 철학자 지식지도	35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36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8
3.1 인식	38
3.2 관심	38
3.3 비판	39
3.4 해방	40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41
 제3부 『인식과 관심』 내용 분석 연구	43
1. 인식	43
1.1 인식 비판의 위기	43
1.1.1 인식 비판의 위기의 실체	44
1.1.2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상실	45
1.1.2.1 절대지의 과학으로서의 정신현상학	45
1.1.2.1.1 초월적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45
1.1.2.1.2 정신현상학 속에서 실종된 인식 비판	46
1.1.2.2 인식 범주로서의 사회적 노동	48
1.1.2.2.1 사회적 노동	48
1.1.2.2.2 유물론적 종합	49
1.1.2.2.3 도구주의 인식론	50
2. 인식적 관심	53
2.1 인식적 관심의 3가지 유형	54
2.1.1 기술적 관심	55
2.1.1.1 실증주의 비판	56

2.1.1.2 콩트의 실증 개념	57
2.1.1.3 마호의 현상주의	58
2.1.1.4 퍼스의 탐구 논리	60
2.1.1.4.1 탐구 논리에서 인식과 행위의 관련성	60
2.1.1.4.2 탐구 논리의 도구적 행위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62
2.1.2 실천적 관심	63
2.1.2.1 딜타이의 해석학적 이해 이론	64
2.1.2.1.1 정신과학의 방법론	64
2.1.2.1.2 자아동일성의 형성	66
2.1.2.2 해석학적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	67
2.1.3 해방적 관심	68
2.1.3.1 반성적 이성의 관심으로서의 해방적 관심	69
2.1.3.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70
2.1.3.2.1 심층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	70
2.1.3.2.2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구조	72
2.1.3.2.3 정신분석학에서 이해와 설명	73
참고문헌	75



일 러 두 기

1. 이 연구서의 분석 대상 문헌인 『인식과 관심』의 표준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표준본:

J.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강영계 역, 고려원 문화총서 7, 고려원, 1983년.

- 원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 2. Auf.,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 영역 표준본:

Jürgen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eremy J. Shapiro, First digital-print edition, Boston: Beacon Press, 2002.

2. 본문에서 인용된 분석 대상 문헌은 국어 표준본과 원어 표준본이다. 그러나 국어 표준본은 필요할 경우 필자가 수정 인용했다. 국어 표준본은 출처를 '(『인식과 관심』, 인용 쪽수)'로, 원어 표준본은 '(*EI*, 인용 쪽수)'로 표기했다.

3. 기타 인용된 참고 문헌은 간단하게 '(저자, 책명, 면수)'로 표기했다. 인용된 문헌의 자세한 서지 사항은 참고 문헌 란에 따로 기재했다.

4. 인용 시 생략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기했다.
5. 원문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필자가 첨가한 문구는 ‘[필자첨가문구]’로 표기했다.
6. 이 연구서의 장, 절 표시는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 인식, 1.1 인식 비판의 위기, 1.1.1 인식 비판의 위기의 실체, 1.1.2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상실’ 순으로 표기했다.
7. 이 연구서의 제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부호, 예를 들어 ‘(e1.1)’, ‘(q1.2)’ 등은 철학지식지도를 웹상에 구현하기 위한 표시다. ‘e’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필자의 설명 또는 해석이고 ‘q’는 이에 대한 원문의 인용을 의미한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하버마스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위르겐 하버마스는 1929년 6월 18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출생, 굼머 스바흐에서 성장. 1949-54년 괴팅겐, 취리히, 본 대학 등에서 철학, 역사학, 심리학을 공부. 1954년 본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 취득. 1956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서 아도르노의 조교를 지냄. 1961년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 취득. 1964년 호르크하이머 후임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교수 취임. 1968년 그의 전기 사상을 대표하는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 출간. 저항운동을 둘러싼 학생들과의 이견으로 197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직. 1971-81년 카를 브리드리히 폰 바이체커와 공동으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 역임. 1981년 그의 생애 최대 걸작인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출간. 1982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교수 재취임. 2005년 현재까지 왕성한 집필 활동.

1.2 생애 해설

아직 살아 있는 한 철학자, 더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자신의 사상적 편력을 이어가고 있는 한 철학자의 삶과 사상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특히 사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하는 일조차 상당한 위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상적 전회(Kehre)를 단행할지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철학자에 관한 한, 차라리 그의 삶과 관련된 교정 불가능한 사실들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만이 어쩌면 ‘오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바로 그런 철학자이다. 그는 실제로 이른바 언어적 전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그 이전과 이후의 사상적 경향은 의식철학(Bewußtseinsphilosophie)에 대한 그 자신의 상반된 태도로 확연히 달라진다. 그가 아직 살아 있으면서 여전히 펜을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대한 언급이 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철학자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상적 궤적과의 연관성을 좌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er Schule)의 제 1세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아도르노(Adorno)와 더불어 이 학파의 트렌드 마크인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을 주도적으로 개발, 확산시켜온 명실상부한 제 2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공인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사상과 생애를 추적하는 길은 결국 ‘하버마스판(版)’ 비판이론의 형성 및 발전과 여기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당대의 역사적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 2세대라 부르는가? 이런 저런 해석과 평가에 기대지 않고 그의 목소리로부터 직접 대답을 유도해보자. 한때 학생들과의 불화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물러나야 했던 바로 그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다시 돌아온 이듬해, 하버마스는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을 강의하면서 자신이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한 학파의 전통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도르노라는 인물과 그의 영향사를 기억하지 않고서도 이 장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아도르노의 사고와 그의 저작을 논쟁적-정치적 파편

이 널려 있는 폐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정말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되돌아보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라는 시대사적 경험들에 대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학살에 대응하였습니다. 한 사유의 전통은 그것의 본질적 의도가 새로운 경험의 맥락에서 증명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낡디 낡은 이론적 내용들을 회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15-16쪽)

위 술회에서도 잠깐 나타나 있듯이 초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가들에게는 마치 천형(天刑)과도 같았던 독일 파시스트 나치의 지배 시기와 하버마스의 유년기는 서로 겹쳐져 있다. 하버마스는 1929년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한 종류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굼머스바흐(Gummersbach)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한때 나치 소년단의 일원이기도 했는데, 물론 아직 자각과 분별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때의 ‘해프닝’이라 그의 이력에 별다른 흠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가 대학을 다닌 때는 나치의 패망과 더불어 2차 대전이 끝난 몇 년 후, 정확히 말하면 1949년부터 1954년까지이다. 그는 괴팅엔 대학에서는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 취리히 대학에서는 한스 바르트(Hans Barth), 그리고 본 대학에서는 에리히 로타커(Erich Rothacker)와 오스카 베커(Oskar Becker)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미 이때부터 그의 철학적 관심이 역사학, 심리학, 독일 문학, 경제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적인’(interdisziplinär)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좌경 독서”도 이때 처음 이루어졌다. 그는 뢰비트(Löwith)의 『헤겔에서 니체까지』를 통해 청년헤겔학파에 관심을 가졌으며, 루카치(Lukács)의 『역사와 계급의식』(*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루카치를 통해 우회한 것이긴 하지만 그가 청년 마르크스(Marx)의 저작을 읽은 것은 학위논문을 준비할 때이다. 그는 1954년 마침내 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이 때 제출한 논문이 셀링(Schelling)의 세계관 철학을 연구한 「절대자와 역사」(Das Absolute und Geschichte)이다. 공부가 끝난 후 그는 산업사회

학에 몰두, 이데올로기 개념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1956년에서 1959년까지의 시기는 하버마스가 장차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의 계승자로 우뚝 서게 될 일생일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때이다. 대학 졸업 후 얼마간의 저널리스트 생활을 거친 다음, 1956년 그는 아도르노의 조교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연구소(Istitut für Sozialforschung)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연구소는 이미 1923년에 창립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핵심 연구 기관이자 초기 비판이론의 산실이었다. 물론 하버마스가 연구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당시의 연구소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망명지에서 귀환하여 1950년에 재건한 것이지만, 어쨌든 ‘철학자’인 그가 여기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사회학자’의 자격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방법을 체득한 것이었다. 이 경험은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하버마스의 사상 전체에 스며들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호르크하이머의 초기 비판이론의 학제적 연구 방법론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었다.

하버마스는 1962년 자신의 교수자격 취득논문인 『공론 영역의 구조 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을 출판한다. 이 책은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를 통합,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요소인 공론 영역의 부침(浮沈) 현상에 대해 사회사적 접근을 시도한 수작(秀作)이다. 이 논문은 원래 1959년 호르크하이мер에게 제출된 것이지만, 정작 사회연구소의 지도자였던 호르크하이мер가 거절하는 바람에 나중에 마르크스 대학의 볼프강 아벤트로트(Wolfgang Abendroth)에 의해 통과된 것이다. 논문이 통과되기 직전인 1961년 하버마스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비전임’(extraordinär) 교수로 가다머(Gadamer), 뢰비트와 함께 있었다. 『이론과 실천』(Theorie und Praxis)(1963)은 바로 이 시기에 발간된 그의 저서이다. 이 책에서 그는 『공론 영역의 구조 변동』에 이어 다시금 루카치 식 헤겔-마르크스주의와 베버-마르크스

주의를 결합하고자 시도한다. 이 저술의 의도는 역사적 유물론의 결정론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이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국면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해방이 환상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마르크스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이델베르크에서의 가다머와의 교제는 하버마스가 자신의 사상에 해석학을 적극 수용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해석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한 편으로는 사회과학의 논리와 관련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후기철학과 비교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하이델베르크 시절, 하버마스는 처음으로 언어철학과 분석적 과학이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을 뿐 아니라 친구인 아펠(Apel)의 격려로 피尔斯(Peirce), 데이(Dewey), 미드(Mead) 등 미국 실용주의자들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그가 “실천철학의 미국적 변형”이라고 한 이들의 실용주의 사상은 이후 하버마스의 사상적 편력에서 헤겔의 관념적 실천철학과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64년 하버마스는 호르크하이머의 후임으로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전임’(ordinär) 교수로 취임한다. 그는 1963년과 64년 독일 사회학회가 주관한 ‘실증주의 논쟁’(Positivismusstreit)에 참여, 같은 대학의 동료였던 아도르노의 편에 서서 변증법과 비판이론을 ‘무기’삼아 실증주의를 비판했다. ‘문현보고’(Literaturbericht) 형식으로 된 『사회과학의 논리』(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1967)는 이 논쟁의 결과를 담은 책이다. 이 논쟁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하버마스의 좌파적 사고가 사회과학 방법론이란 형태로 그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실증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겉으로는 논쟁의 상대자인 포퍼(Popper)와 알베르트(Albert) 등 비판적 합리주의를 겨냥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실증주의는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서유럽 복지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소진시키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실증주의 비판은 곧바로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증주의를 자양분 삼

아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학과 기술, 점점 비대해져가는 자본주의의 기술 관료적 복지 체제, 이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약화되어가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잠재력, 그리고 확산일로에 있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등이 당시 서유럽 사회의 최대 문제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는 실증주의 비판을 통해 이미 사회 비판가이자 이데올로기 비판가로서의 면모를 대중 앞에 드러내게 된 셈이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 독일에서 학생, 비판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좌파’ 운동이 일어나자 하버마스는 이 저항운동의 긍정적 잠재력을 읽어낸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그의 의도와는 달리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자 급기야 그는 학생들과 불화를 빚게 된다. ‘혁명’에 동조적이지 않은 비판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비난은 급기야 사회연구소를 점거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경찰은 또 이들을 폭력적으로 해산했다. 아도르노는 학생들과의 갈등 속에서 1969년 사망했으며, 하버마스는 학생들의 저항운동을 “좌파 파시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969년에 발행된 『저항운동과 대학개혁』(*Protestbewegung und Hochschulreform*)은 이 당시의 시대적 생동감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의 정치적 소논문집이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교수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떠나게 된다. 이때가 1971년이다.

하버마스 전기 사상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인식과 관심』이 출판된 해는 1968년으로 그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떠나기 전이다. 이 책은 그가 체계적인 의도 아래 철학사의 인식론을 재구성, 비판이론을 인식론적으로 정초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식주도적 관심”(Erkenntnisleitende Interesse)이란 독특한 용어를 창안,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인식론을 비판한다.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인식 형태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갖는 특정한 관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보면, 인식주도적 관심은 그가 이미 수년에 걸쳐 행한 바 있는 실증주의 비판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하버마스가 언어적 전회를 단행하기 이전, 의식철학에 기반하여 ‘비판적 사회이론은 곧 사회

인식론’이라는 신념 아래, 그간 실증주의가 무시해온 자기반성적, 비판적 정신을 회복, ‘실천적 의도를 지닌 역사철학을 재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인간종(人間種)의 역사창조 행위를 ‘노동’(Arbeit)과 ‘상호작용’(Interaktion)으로 분리, 마르크스를 포함한 기존 좌파 역사철학의 노동패러다임을 자연 지배에 관심을 갖는 실증주의로 해석, 비판하면서, 노동 영역 대신에 상호 작용 또는 의사소통 영역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찾는 의사소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과 상호작용의 분리 사유는 후일 그가 언어적 전회를 단행한 후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통한 이원론적 사회이론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이 저술은 전후기 사상을 막론하고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서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사상이 사회비판의 반성적 기초로서 의식철학에서 언어철학으로 이행한 것을 두고 그의 전후기 사상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면 커다란 오해다. 그는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쉬츠(Schutz)의 현상학, 촘스키의 일반 문법이론, 오스틴(Austin)의 언어행위 이론을 깊이 공부했으며, 그 스스로 이러한 학습이 “보편화용론 사상의 탄생에 자극제”가 되었다고 술회한다. 즉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의 사회 영역에서 비판의 장소와 해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그의 사상적 핵심 의도는 전후기를 관통하고 있으며, 다만 의식철학에서 언어철학으로의 전회는 이러한 비판이론적 의도를 ‘사변’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정초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이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떠난 하버마스는 1971년 슈타른베르크(Starnberg) 소재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에서 바이츠체커(Weizsäcker)와 공동으로 연구소장직을 수행한다. 이 연구소는 과학 기술 세계의 삶의 조건을 연구하는 곳이었는데, 물론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과학기술 및 관료적 사회 체제가 생활세계의 상호작용 영역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규명, 비판하는 것이었다. 1971년 그는 당시 체계이론(Systemtheorie)으로 주목받고 있던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과 함께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 체계 연구는 무엇을 실

행하고 있는가?』(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를 출판, 이른바 ‘하버마스-루만 논쟁’이라 불리는 비판이론 대 사회체계 이론의 논쟁의 불씨를 지핀다. 체계이론이 사회를 사물화된 체계와 동일시하는 일종의 테크놀로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의 비판은 과거 실증주의 비판과 노동패러다임의 마르크스 역사철학에 비판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하여』(Zur Rekonstruktion des Historischen Materialismus, 1976)도 이 시기 출판된 주요 저술이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역사유물론과는 다른 자신의 새로운 사회진화론을 밝히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전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노동 또는 생산 패러다임에 입각한 역사유물론의 환원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도덕 발달과 자아정체성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발전이 사회진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관점에 서면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제적 시스템의 위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시스템의 위기는 그것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정당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이 점을 이미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1973)를 통해 피력한 바 있다.

하버마스는 1981년 마침내 자신의 생애 최대의 걸작인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을 출판한다. 2권으로 구성된 이 저작의 제 1권은 부제가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이고 제 2권의 부제는 ‘기능주의 이성 비판’(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이다. 한때 주요 저작으로 간주되었던 『인식과 관심』마저도 이 대작에 비할 때 “단지 초기 작품 정도로 의미가 퇴색” 할 정도라면, 그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비로소 “철학도로서의 공개적인 실습 과정을 끝마쳤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다.(발터 래제-쉐퍼, 선우현 역, 『하버마스. 철학과 사회이론』, 15쪽) 그러나 하버마스의 언어적 전회, 즉 비판 이론의 규범적 정초를 위해 의식철학을 포기하고 언어철학으로 전환한 사건이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또한 오

해의 소지가 있다. 1984년에 출간된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예비 연구와 보완』(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에 수록된 「사회학의 언어이론적 정초에 대한 강의」("Vorlesungen zu einer sprachtheoretischen Grundlegung der Soziologie", 1970/71), 「진리론」("Wahrheitstheorien", 1972), 「보편화용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Was heißt Universalpragmatik?", 1976)등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예고하는 대부분의 주요 논문들은 『인식과 관심』 직후부터 10여 년간 이미 쓰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의사소통행위 이론』으로 말미암아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명백히 인식적 관심에 바탕을 둔 사회인식론으로부터 화용적(話用的) 언어이론을 기초로 한 사회이론으로의 이행을 완료한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넓은 의미로 근대 사회의 범주 속에 포섭되고 이러한 근대 사회의 발전 과정은 '합리화'로 규정되며, 노동과 상호작용의 이원론은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의 이원론 및 체계의 합리화와 생활세계의 합리화의 이원론으로 개념화되고, 따라서 근대 사회의 지배 메커니즘도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화'(Kolonialisierung)하는 합리화의 패러독스로 설명된다. 과거 인식 비판을 통해 진단한 근대 사회의 병폐는 더 이상 '의식'의 사물화가 아니라 의사소통 관계의 사물화로 설명됨으로써, 루카치식 헤겔 마르크스주의의 주체철학은 종언을 고하게 된다. 우리가 하버마스의 사상을 전후기로 나눈다면, 그 견널목은 시기상으로는 『인식과 관심』 직후인 1970년대 초, 그리고 이론 형성의 특징으로 보면 비판이론의 규범적 정초를 의식 철학이 아니라 언어철학에서 찾는 바로 그 지점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 보면 『의사소통행위 이론』은 이러한 점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된 형태이다.

1983년 하버마스는 다시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복귀한다. 이 때부터 그는 자신의 의사소통행위이론적 사회비판 패러다임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 힘을 쏟는다. 이미 1980년 「모더니티 — 미완의 프로젝트」(Die Moderne — ein unvollendetes Projekt)라는 논문을 통해 신보수주의(Neukonservatismus)와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us)에 대

한 비판을 시작한 바 있는 그는 1985년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을 통해 신구조주의의 이성 비판에 대항한다. 의사소통 합리성의 잠재력이 우리 시대에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는 시대 진단에 입각한 그의 근대적 프로젝트는 80년대 보수주의 우파로부터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반대로 좌파로부터는 수정주의 또는 보수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입장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즉 그가 옹호하는 민주주의는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기초를 둔 심의(審議) 민주주의로, 이성과 토론에 의거한 공론 영역의 활성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 사회 시스템 작동의 매체인 화폐와 권력이 공론 영역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대체, 의사소통 합리성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것이 사회 병리라면, 『사실성과 타당성』(Faktizität und Geltung, 1992)에서 그가 옹호하는, 이성과 토론에 기반한 절차적 심의 민주주의의 제도는 여전히 수행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근대적 프로젝트이다.

하버마스가 수행한 비판이론의 변형은 비판이론의 자기극복의 일환이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은 이성중심의 주체철학 내지 의식철학에 기반한 비판이론이 어떻게 비판의 좌초에 이르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버마스의 대안은 옛 비판이론의 주체중심적 이성관을 상호주체적 이성,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대체, 이를 비판의 규범적 기초로 삼는 사회이론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버마스는 당대의 논객들과 사상사에서 길이 남을 굽직한 논쟁들을 거쳤다. 앞에서 일부만 언급하고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중요한 논쟁들도 있다. 그가 주도한 논쟁들을 열거해보면, 실증주의 논쟁에서 시작하여 독일사회주의 학생연맹과의 좌파파시즘 논쟁, 루만과의 체계이론 논쟁, 가다며와의 해석학 논쟁,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헨리히와의 형이상학 논쟁, 신보수주의와의 역사 논쟁 등이다. 그의 ‘논적’(論敵)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의 학문적, 사상적 외연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순수 철학자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실제로 그는 독일의 지적 전통에서 벗어나 과감히 영미 언어철학을 수용하는 한편, 사회학, 심리학, 인류

학,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 성과들을 가공, ‘자기화’(自己化)하고 있다.

타자의 것을 자기화하는 일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눈에는 ‘억압’과 ‘지배’의 방식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꼭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타자의 이론을 자기 식으로 수용하는 하버마스의 과감한 ‘지적 실험’은 그러한 타자에게는 ‘오해’와 ‘실수’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비판이론가로서의 하버마스의 독특한 면모가 있다. 그가 철학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과학 이론들을 ‘자기식’으로 변형, 가공, 수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찍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이 규범과 경험, 철학과 경험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주창했듯이, 이 방법론의 정신은 여전히 하버마스에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논적의 눈에 ‘오해’ 내지 ‘실수’로 비쳐지는 것들은 비판이론가인 그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변형’이며, 타자의 이론들은 어디까지나 형해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 구성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하버마스는 실존하는 세계철학계의 거두(巨頭)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은 은퇴하여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지만 여전히 현역 시절 못지 않게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과 9, 11 테러리즘을 둘러싼 데리다(Derrida)와의 대화 등 그가 토해놓고 있는 현실 정치와 사회 상황에 대한 최근의 발언들의 이론적 기초는 여전히 의사소통행위 이론이다. 이 생애 해설의 첫머리에서도 밝혔지만,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하나의 완결되고 온전한 해설과 평가를 기대한다면, 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조급증의 발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D, Horster, *Habermas zur Einführung* / 발터 레제-쉐퍼, 선우현 역, 『하버마스. 철학과 사회이론』 / 장준익 외,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등에서 많은 부분 참고.)

1.3 생애 연보

- 1929년: 뒤셀도르프에서 출생, 상공업에 종사한 아버지의 근거지인
굼머스바흐에서 성장.
- 1949–54년: 대학 입학, 괴팅엔, 취리히, 본에서 역사학, 심리학,
독일문학 전공.
- 1953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하이데거
(Heidegger)에 대한 자신의 최초의 비판을 게재,
『계몽의 변증법』독서.
- 1954년: 「절대자와 역사. 셀링 사유의 분열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에리히 로타커와 오스카 베커 아래서 본 대학 박사학위 취득.
- 1954–56년: 자유기고가로 활동.
- 1955년: 우테 베셀회프트(Ute Wesselhoeft)와 결혼.
- 1956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서 아도르노의 조교 생활.
- 1959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 사직. 독일연구협회(DFG)로부터
교수자격취득 논문 장학금 수혜(1959–61)
- 1961년: 루드비히 폰 프리데부르크(Ludwig von Friedeburg), 크리스
토퍼 월러(Christoph Oehler), 프리드리히 웰츠(Friedrich
Welz) 등과 함께 『학생과 정치』(*Student und Politik*) 공
저. 독일사민당(SPD)과의 불화 후 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SDS)
의 자문위원이 됨. 마르부르크 대학의 사강사(“사회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본 고전적 정치 학설”[*Die klassische Lehre von
der Politik in ihrem Verhältnis zur Sozialphilosophie*]로
취임 강연).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 교수(「프랑스혁명에 대한
헤겔의 비판」[*Hegels Kritik an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로
취임 강연).
- 1962년: 마르부르크 대학의 볼프강 아벤트로트에게서 “공론영역의 구조
변동”으로 교수 자격 취득.
- 1963년: 『이론과 실천』출판. 아도르노의 편에서 독일사회학의 실증주

의 논쟁 가담.

- 1964년: 막스 호르크하이머 후임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교수 취임. 퍼스(Peirce) 독서.
- 1965년: “인식과 관심”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 취임 강연.
- 1967~8년: “거짓혁명과 그 후예들”(Die Scheinrevolution und ihre Kinder)로 학생운동과 논쟁.
- 1968년: 『인식과 관심』 및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출판. 학생운동이 정점에 이르면서 하버마스에 반대하는 문건 “좌파가 위르겐 하버마스에게 대답한다”(Die Linke antwortet Jürgen Habermas) 이 발행됨.
- 1971년: 학생들과의 불화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직 사임.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커와 함께 슈타른베르크의 <과학기술 세계의 삶의 조건을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니클라스 루만과의 공저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를 통해 루만과 체계 이론 논쟁. 『철학-정치 프로필』(*Philosophisch-politische Profile*) 출판.
- 1973년: 슈투트가르트의 헤겔 상(Hegel-Preis) 수상. 『문화와 비판』(*Kultur und Kritik*) 및 『후기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출판.
- 1976년: 다름슈타트의 지그문트 프로이트 상(Sigmund-Freud-Preis) 수상. 『역사적 유물론의 재구성을 위하여』출간.
- 1980년: 프랑크푸르트의 아도르노 상 수상(Adorno-Preis) 수상. 뮌헨 대학이 하버마스의 명예교수(Honorarprofessor) 임명을 거부.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
- 1981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 사임. 『의사소통행위 이론』 출간.
- 1983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 및 사회학 교수 재취임. 뮌헨에 있는 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도덕의식과 의사소통행위』(*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출판.

- 1984년: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예비 연구와 보충』 간행.
- 1985년: 뤼헨의 솔 자매 상(Geschwister-Scholl-Preis)과 헤센주(州)의 빌헬름 로이슈너 메달(Wilhelm-Leuschner-Medaille) 수상.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과 『새로운 불투명성』(*Die Neue Unübersichtlichkeit*)출간. 디터 헨리히(Dieter Henrich) 와의 형이상학 논쟁
- 1986년: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 미하엘 슈튀르머(Michael Stürmer), 클라우스 힐데브란트(Klaus Hildebrand),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gruber) 등과 역사가 논쟁(Historikerstreit)
- 1987년: 『일종의 손배처리』(*Eine Art Schadenabwicklung*)간행.
- 1988년: 『탈형이상학적 사유』(*Nachmetaphysisches Denken*) 출판.
- 1989년: 함부르크 대학에서 명예박사(Ehrendoktor)를 받음.
- 1990년: 『만회 혁명』(*Die nachholende Revolution*)출간.
- 1992년: 『사실성과 타당성』출간.
- 1993-현재: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은퇴.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 명예교수(Emeritierter Professor). 슈타튼 베르크에 거주하면서 활발한 저술과 외부 강연 활동.

1.4 저작

1.4.1 이론과 실천

한국어 표준본: J. 하버마스, 『이론과 실천』, 홍윤기, 이정원 옮김, 종로서적, 1982.

영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Theory and Practice*, trans. by John Viertel, London: Heinemann, 1974.

원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Theorie und Praxis. sozialphilosophische Studien*,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243, 1978.

1.4.2 인식과 관심

한국어 표준본: J.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강영계 역, 고려원 문화 총서 7, 고려원, 1983.

영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lated by Jeremy J. Shapiro, First digital-print edition, Boston: Beacon Press, 2002.

원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 2. Auf.,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1.4.3 의사소통행위이론 1/2권

한국어 표준본: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1.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장춘익 역, 서울: 나남출판, 2006.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역, 서울: 나남출판, 2006.

영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4.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 Reas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7.

원어 표준본: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Handlungs 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175, 1.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Zur Kritik der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175, 1.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5.

2. 『인식과 관심』 해제

2.1 『인식과 관심』 요약

『인식과 관심』은 하버마스가 서문에서 이야기한대로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을 분석하려는 ‘체계적’ 의도에서 최신 실증주의의 전사(前史)를 재 구성하려는 ‘역사적’ 시도”(EI, 9쪽, 강조 부분은 필자)를 담은 책이다. 실증주의는 근대 자연과학을 세계에 대한 진리 주장의 유일한 형태로 방법론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대표적인 철학적 입장으로, 하버마스는 이 책을 출판하기에 앞서 이미 독일 사회학계의 방법론 논쟁을 통해 그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인식과 관심』은 일견 그 방법론 논쟁에 대한 문헌보고 형식을 띤 『사회과학의 논리』의 후속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버마스의 사상적 편력 전체로 보면 단순한 과학방법론 차원을 떠나 그 자신의 독특한 비판이론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일대의 역작이다. 이 책에서 하버마스가 선보이는 자신의 독특한 비판이론은 의식철학에 기반한 사회인식론이며, 이 이론은 그의 사상적 발전의 선상에서 보면 이른바 언어적 전회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비교될 수 있다. 『인식과 관심』에서 하버마스가 시종일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칸트가 시도한 바 있는 인식 비판의 과업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과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과학적 인식에는 그러한 인식을 구성하는 유사초월적(pseudo-transzendental)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선형적이고 무역사적인 주체가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인식 및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종(種)이 필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활세계적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인식은 인식 주체의 삶의 관심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를테면 자연과학은 기술적 관심으로부터, 정신과학 또는 문화과학은 실천적 관심으로부터, 비판적 사회과학은 해방적 관심으로부터 구성되는 지식 체계이다. 이처럼 인식이 인식 주체의 생활세계적 관심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라면, “인식 비판은 오직 사회이론으로서만 가능하다.”(EI, 9쪽)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 비판의 참된 의도는 인간

의 자유와 성숙(Mündigkeit)을 가로막는 사회의 지배 체계와 이것을 인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에 대한 비판이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인식과 관심』에서 자신의 비판이론을 사회인식론적으로 정초 하려는 이유가 된다.

2.2 『인식과 관심』 해설

2.2.1 인식 비판의 위기

하버마스가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바는 철저한 인식 비판이 오로지 사회이론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험분석적 과학이든 해석학적 과학이든 비판적 과학이든 그 어떤 종류의 과학도 그 발생 연관과 적용 연관을 사회적 생활세계의 맥락에 두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인식 비판, 즉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반성 작업은 사회이론(Gesellschaftstheorie)의 형태를 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 하버마스는 객관주의(Objektivismus)를 표방하는 과학을 세계에 대한 유일한 지식 체계로 간주하는, 그리하여 인식론을 과학 방법론으로 대체하는 오늘날의 풍조를 인식론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 위기의 역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그의 체계적 의도는 이처럼 인식론 폐기(Aufhebung der Erkenntnistheorie)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론의 폐기는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Selbst-reflexion) 능력의 소멸과 동어의이다. 칸트(I. Kant)에게서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은 인식 비판의 형태를 떠었는데, 인식론의 이러한 위상은 그 이후 차츰 소멸되어오다 지난 세기에 이르러 이른바 과학주의(Szientismus)의 흥기와 더불어 일개 과학방법론으로 전락해버렸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인식론의 이러한 위상 변화는 이미 칸트 이후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에

이르는 동안 예고되고 있었다.

비록 초월적(transzendential) 관점이긴 하지만 칸트의 비판철학은 인식론의 과업이 진정 무엇이어야 하는지 최초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즉 칸트에게서 인식론은 적어도 오늘날의 과학철학에서처럼 과학적 방법을 해명하는 시도로 축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식론은 세계에 관한 기준의 형이상학적 지식 체계를 의문시하고 나아가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가능한 인식의 조건을 밝히려는 본연의 과업에 충실했다. 이 점은 인식론, 곧 철학이 과학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칸트의 인식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은 이론이성이 이성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달리 말하면 과학은 가능한 인식의 유일한 범주가 아니라 기껏해야 그것의 ‘한’ 범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칸트에 대한 헤겔의 불만은 칸트의 이러한 인식 비판의 논리가 초월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즉 칸트는 선협적(a priori) 인식 형식들(시간, 공간 및 범주)을 미리 구비하고 있는 비판적 의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헤겔은 인식 주체가 모든 역사적 계기들을 초월해 있는 하나의 절대적 기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칸트가 전제하는 그러한 선협적 인식 조건들의 발생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 그가 내세우는 ‘현상학적 반성’(phänomenologische Reflexion)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며, 구체적으로는 감각적 확실성에서부터 일련의 의식 형성 과정을 거쳐 비판의 단계에 이르는 비판적 의식의 발생의 역사를 검토하는 일이다. 헤겔에 의하면 칸트가 미리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비판적 의식은 사실상 인간종과 개인, 이 모두의 형성과정(Bildungsprozesse)의 산물이다.

하버마스는 헤겔이 칸트 비판철학의 약점을 인식 주체와 인식 과정의 몰역사적 성격에서 찾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헤겔의 잘못은 그가 반성의 주체로서 절대정신(das absolute Geist)을 상정함으로써, 칸트처럼 경험과학을 가능한 지식의 한 범주로 비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정신의 자기인식, 곧 절대지의 과학 속으로 용해시켰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경험의 가능 근거를 묻는 인식론

의 과업 자체가 도리어 절대정신의 경험의 과학이 됨으로써 헤겔은 단적 으로 말해 인식론을 철저하게 밀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폐기 했다는 지적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론의 철저화는 헤겔의 신학적 주장으로부터 합리적 핵심을 추출할 때만이 가능하다. 즉 비판적 의식이 인간종과 개인의 형성과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절대정신의 자기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구체적 활동으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헤겔에 이어 인식론의 철저화를 시도한 두 번째 반성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마르크스는 가능한 경험의 발생을 삶의 물질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인간종의 자기재생산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게서 인식 주체는 더 이상 초월적 자아도 절대정신도 아니다. 그것은 삶의 영원한 자연적 필연성과 대면하여 이를 역사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노동하는 인간 주체이다. 칸트가 밝혀낸 인식 주체의 종합적 활동은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하는 주체가 자연과의 물질교환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감성적 활동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 활동을 이처럼 인간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맥락에서 조망하고자 한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러한 진일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의 철저화에는 실패했다. 마르크스의 희망은 자신의 작업을 하나의 엄밀한 과학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런 까닭에 그는 과학을 인식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사회의 발전을 지배하는 경제 법칙을 하나의 필연적인 자연법칙의 지위에 올리고자 한 마르크스의 노력 역시 이후의 실증주의의 발호를 저지하는 데 무력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평가이다.

칸트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에 이르는 인식론의 폐기 과정을 검토하면서 하버마스가 부활시키려는 것은 인간종의 인식론적 반성의 힘이다. 그는 인간의 삶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인식의 조건들을 드러냄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가 실패한 인식론의 철저화를 다시 감행하고자 시도하는데, ‘인식적 관심’(Erkenntnisinteresse)은 그의 이러한 시도를 규정짓는 핵심 개념

이다. 하버마스는 실재를 인식하는 특수한 관점 내지 체계적인 탐구를 인도하는 일반적인 인식 전략의 기초가 인간종의 삶의 역사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종의 역사적 삶의 측면을 첫째, 노동을 통한 물질적 기초의 재생산, 둘째 일상언어를 통한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관계에의 참여, 셋째, 왜곡된 삶의 조건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실재에 대한 인식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갖게 되는 관심의 유형들, 그러니까 자연 지배에 대한 ‘기술적 관심’(technische Interesse)과 상호작용 참여에 대한 ‘실천적 관심’(praktische Interesse), 그리고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해방적 관심’(emanzipatorische Interesse)에 의해 유도되며, 이에 대응하여 각각 형성되는 지식 체계가 ‘경험분석적 과학’(empirisch-analytische Wissenschaft), ‘역사해석적 과학’(historisch-hermeneutische Wissenschaft), ‘비판지향적 과학’(kritisch orientierte Wissenschaft)이다.

과학이 비록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삶에의 관심에 의해 유도된다. 과학이 이 점을 망각하고 객관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 나아가 철학 또한 이러한 과학의 방법론으로 전락한 실정에서 하버마스는 인식 비판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으며 인식론의 철저한 수행을 통해 인식 비판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2.2.2 경험분석적 과학과 기술적 관심

하버마스는 인간의 자기보존 과정에서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술적 관심에 의해 유도된 지식 체계가 경험분석적 과학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대 과학의 방법론적 정당화에 몰두해온 실증주의의 역사를 비판한다. 하버마스가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테제는 실증주의가 인식론적 과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식과 인식 주체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을 배제하고 과학 이론의 구성과 검사 등 과학적 행동의 방법론적 분석에만 몰두함으로써 인식론을 일개 과학 이론으로 대치시켰을 뿐 아니

라 결과적으로 기술관료적 의식을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증주의는 인식론의 종말을 특징짓는 명칭이다. [실증주의에서는] 인식론 대신에 하나의 과학 이론이 등장한다...인식은 암암리에 과학의 실행을 통해 정의된다. 그래서 가능한 인식의 조건들에 대한 초월적 물음은 오직 과학 이론의 구성과 검사의 규칙들에 대한 방법론적 물음의 형태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El, 88쪽)

실증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콩트(Comte), 마흐(Mach), 퍼스(Peirce) 등의 사상을 대상으로 근대 실증주의의 전사(前史)를 재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콩트까지만 해도 실증주의는 아직 역사철학의 외피를 벗어던지지 못한 상태였다. 즉 그가 제시한 인류의 지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은 과학을 인식론이 아니라 역사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이었다. 물론 콩트는 ‘실증적’(positiv)란 용어를 써서 확실성, 정확성, 유용성 등 ‘형이상학’과 구별되는 과학적 지식의 성격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사태’에 선행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확보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지적 진보에 관한 역사철학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콩트의 실증주의는 아직 “순수한” 의미의 실증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실증주의가 역사철학적 외피에서 벗어나 점점 과학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19세기 마흐에 이르러서이다. 마흐의 현상론(Phänomenalismus)은 과학의 대상을 직접적인 감각 경험의 흐름으로부터 추상된 일련의 정돈된 관찰들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과학 이론으로부터 형이상학적 성격을 제거하고 다양한 과학들을 감각 경험에 관한 하나의 일반 과학으로 통일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과 ‘실재’가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상주의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들은 한편으로는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감각 경험에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은 또 한편으로는 “상호 주관적”인 것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객관적 지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마흐는 사실의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이러한 아포

리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주의적인 관점을 선택, 사실에 관한 하나의 존재론을 확립하고자 했으나 이런 가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상주의의 이러한 난점은 그것이 처음부터 상호주관성과 사회적 실천의 세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실증적인 것을 마호처럼 감각 경험에 직접 주어진 관찰적 지각과 동일 시하든 카르납(R. Carnap)처럼 물리적 대상과 같은 것으로 보든, 이것들을 객관적 사실로 존재론화시키는 실증주의는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연관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객관주의를 고수하는 실증주의는 사실의 인식에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주관의 작용 연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협소한 실증주의를 넘어 과학에 대한 체계적 반성의 필요성을 인식, 과학적 탐구 논리에 주체의 행동 개입을 역설한 사람이 바로 실용주의자 퍼스이다.

퍼스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행동 유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을 체계화, 정식화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자연과학을 비롯한 모든 경험분석적 과학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되는 인식은 도구적 행위 체계 안에 들어 있는 학습과정의 반성 형식으로 이해 된다. 물론 여기서 도구적 행위 유형이란 삶의 외적 조건을 통제하는 데 이용되는 활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평가에 따르면 퍼스의 실용주의(Pragmatismus)는 과학으로부터 실증주의의 객관주의적 환상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그것은 사실들이 경험과 행동의 특정한 구조를 통해 구성된다는 인식론 본래의 취지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했다. 하버마스는 퍼스를 통해 경험분석적 과학이 자연에 대한 기술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방법론에 의해 획득된 지식이 사실은 자연 지배의 기술적 관심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결론을 말하자면, 과학은 하나의 형식적인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물론 경험분석적 과학의 개념, 방법, 이론 그 자체는 그러한 활동의 전제조건인 인간의 상

호작용과 언어를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실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경험분석적 과학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과학이 떠맡아야 할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2.2.3 역사해석적 과학과 실천적 관심

실증주의 비판을 통해 하버마스가 밝혀낸 것은 실증주의가 경험과학적 인식의 구성 문제를 그것의 실천적 맥락에서 고찰하지 못한다는 점, 오히려 그것이 객관주의적 인식을 방법론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인식론을 일개 과학이론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2.2.2의 끝에서 언급한 대로 실증주의가 망각하고 있는 과학적 활동의 전제조건, 즉 과학적 인식의 실천적 맥락에 대한 탐구는 이제 경험분석적 과학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과학에게 남겨진 뜻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역사해석적 과학이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해석적 과학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의는 그것의 방법론적 체계와 지식 구성 방식에 집중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해석적 과학은 현실을 어떻게 포착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경험분석적 과학이 “특수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도처에서 항상 가능한 기술적 통제와 관련하여 현실(Wirklichkeit)을 포착한다.”면, 해석적 과학은 “주어진 해석적 출발점마다 고유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지향적 상호이해의 상호주관성과 관련하여 현실의 해석(Interpretationen der Wirklichkeit)을 포착한다.”(EI, 241쪽) 물론 이를 하버마스의 인식적 관심 이론에 따라 다시 표현한다면, 경험분석적 과학의 기술적 관심이 인간의 삶에서의 노동의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해석적 과학의 실천적 관심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인간 삶의 명령, 즉 일상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적 삶에 있어서 상호 주관적 이해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해석적 과학의 지식 구성 방식이 인간종의 실천적 관심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딜타이(Dilthey)의 정신과학(Geistes-

wissenschaft) 방법론을 연구한다. 그가 말하는 정신과학이란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인 삶이 표현된 상징 체계를 분석하는 과학으로, 넓게 말하면 인간의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는 현실에 대한 “설명”(Erklärung)을 방법론적 목적으로 삼는 자연과학과 비교하여 정신과학 혹은 문화과학의 방법론을 상징들 속에 표현되어 있는 사회적, 역사적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Verstehen)로 특징짓는다. 처음에 딜타이는 이러한 이해의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감정이입을 통한 자신이나 타인의 과거 심리 상태의 부활을 강조, 심리주의에 경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심리학”은 해석학의 단자론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비판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정신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딜타이 자신의 수정은 소박한 감정이입 이론 대신에 체험, 표현, 이해 등 해석학의 주요 범주들 간의 방법론적 연관성을 수용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된 견해에 의하면 해석학적 이해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와 동일한 삶의 체험을 심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의 체험이 상징을 통해 객체화된 것, 즉 “객관 정신”的 구조와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해석적 이해는 이러한 공적(公的)인 구조와 합법칙성에 의거할 때, 비로소 역사적, 사회적 삶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딜타이에 대한 해석에서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즉 체험은 공적으로 확립된 상징적 구조들, 즉 언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담긴 상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이해는 언어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상호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해는 우선 실천적 삶의 관심 속에서 나온다. 여기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교류에 의존한다. 그들은 상호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는 타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점은 이해의 기초적인 형태이다.”(Dilthey, *Ges. Schriften VII*, 207쪽, *EI*, 219쪽에서 재인용)

해석적 과학의 인식이 상호주관적 이해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세계를 탐구하려는 과학자가 언어와 탐구 대상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

하버마스는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객관적 준거 체계로 “생활 단위의 공동체”에 주목한다. 이 공동체는 그 안에서 각자가 타인을 의미 공유의 지향적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삶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해석적 이해의 방법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을 탐구하려는 과학자는 자신의 활동이 어떤 관심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버마스의 해석에 의하면 딜타이가 해석적 이해의 좌표로서 이러한 의사소통 공동체를 상정한 것은 해석적 과학의 인식이 성공적인 사회적 삶의 영위에 대한 인간종의 실천적 관심에 의해 이끌려나오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딜타이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딜타이는 해석적 과학과 실천 활동과의 관계를 인식의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과학의 객관성 차원에서 바라본 나머지 과학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과학의 객관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판에 따르면 딜타이의 해석적 과학은 비록 그 탐구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경험분석적 과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식적 관심의 뿌리를 망각하는 한 객관주의를 고수하게 된다. 해석적 과학의 기능이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Deskription)에 제한된 것이라면, 여기서도 과학과 삶, 이론과 실천은 각각 분리된다.

2.2.4 비판지향적 과학과 해방적 관심

경험분석적 과학과 역사해석적 과학이 각각 기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자연, 사회, 문화 등 세계에 관한 가능한 지식의 성립가능성이 인간종의 역사적, 사회적 삶의 조건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인식론은 사회이론으로서의 인식론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인식 유형과 이에 상응하는 과학은 인간종의 실천적 삶의 맥락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과제에 관한 것이다. 만일 인간종의 형성 과정(Bildungsprozesse)이 지배, 억압 및 행위의 이데올로기적 틀

로 규정된다면, 인간의 자기이해는 정당화되지 못한 조건들에 의해 제한된다. 이 경우 인간의 인식은 ‘투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이해에 필요한 적절한 인식 형태는 자아형성 과정의 결정적 요인들을 분석, 그 과정 속에 들어 있는 왜곡의 구조들을 밝히는 과학이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런 유형의 과학적 인식을 지도하는 관심을 “해방적 관심”이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반성의 해방적 힘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발생의 역사에서 자신을 투명한 상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성의 경험은 내용적으로는 형성 과정의 개념 속에서 드러나며, 방법적으로는 이성과 이성에의 의지가 강제 없이 동일화되는 출발점이 된다. 자기반성 속에서, 인식을 목적으로 삼는 인식은 성숙(Mündigkeit)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반성의 실행은 자기 자신을 해방 운동으로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성은 이성에 대한 관심 아래에 있다. 이성은 반성의 실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해방적 인식 관심’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EJ, 243-244쪽)

‘지배’로 표현되는 인간종의 자기 형성 과정의 왜곡된 구조는 기술적, 실천적 지식의 이데올로기화를 야기한다. 퍼스와 딜타이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분석적 과학과 역사해석적 과학은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적 조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과학의 이데올로기화 내지 인간종의 왜곡된 자기이해는 한 사회의 왜곡된 의사소통적 구조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해방적 관심이란 의사소통의 왜곡된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는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해방적 관심은 비판지향적 과학을 주도하는 관심이다. 달리 말하면 비판지향적 과학의 목적은 방법적 자기반성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삶의 자기의식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해체하는 데 있다.

하버마스가 이러한 비판지향적 과학의 모델로 삼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다. 그가 보기에 정신분석학은 그 자체가 방법적 자기반성이 구현된 과학의 유일한 예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병리적 차원에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개인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를 용이하게 하는

해석틀을 발전시킨다. 정신분석학은 한편으로는 신경증적 징후를 보이는 피분석자의 꿈이나 언어, 행위 등의 상징적 표현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전망과 기술적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의 방법적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또한 단순한 해석을 초월하여, 피분석자로 하여금 그러한 징후의 원인인 되는, 그러니까 상징적 표현에 잠재적으로 들어 있는 그의 왜곡된 삶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의식하게 함으로써 피분석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역사를 재구성하게 만드는 치료적 의도를 갖고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이러한 반성적 절차는 상징에 대한 해석적 이해를 정신 병리의 인과적 설명과 결합시키는 독특한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하버마스는 정신분석학을 “심층해석학”으로 명명한다.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자신이 잘못 의도한 것처럼 자연과학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학의 진정한 본성은 과학이 아니라 비판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분석학을 비판지향적 과학 내지 비판이론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정신분석학과 마찬가지로 비판이론의 경우에도 우리는 첫째, 그 본성과 의미가 문제시되는 대상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전통 해석학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들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대화를 이용한다. 셋째, 전통적인 해석적 기법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경우, 이 속에는 억압과 왜곡에서 기인하는 불투명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불투명성을 인과적 관련을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의 일반 이론에 의거해서만 구성되며, 이 일반 이론 자체는 대상의 본성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메타이론의 용어들로 형성된다. 넷째, 이 일반 이론을 개별적 사건들, 가령 정신분석학의 경우 개인의 삶의 역사, 비판이론의 경우 특수한 사회의 재구성 등을 통해 테스트함으로써, 그 이론이 과연 의사소통의 왜곡을 폭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324쪽)

2.3 『인식과 관심』 상세 목차

서언

제1장. 인식 비판의 위기

제1절.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 인식론의 철저화인가 혹은 폐기인가

제2절. 헤겔에 대한 마르크스의 메타비판: 사회적 노동을 통한 종합

제3절. 사회이론으로서의 인식론의 이념

제2장. 실증주의, 실용주의, 역사주의

제4절. 콩트와 마흐: 옛 실증주의의 의도

제5절. 퍼스의 탐구 논리: 언어 논리적으로 개선된 보편자 실재론의 난제

제6절. 자연과학의 자기반성: 의미에 대한 실용주의적 비판

제 7절. 딜타이의 표현 이해의 이론: 자아동일성과 언어적 의사소통

제 8절. 정신과학의 자기반성: 의미에 대한 역사적 비판

제3장. 인식과 관심의 통일로서의 비판

제9절. 이성과 관심: 칸트와 피히테에 대한 회고

제10절. 과학으로서의 자기반성: 의미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적 비판

제11절. 메타심리학의 과학주의적 자기 오해: 일반적 해석의 논리에 관하여

제12절. 정신분석과 사회이론: 니체에 의한 인식적 관심의 축소

인명색인

후기

2.4 주요 용어

2.4.1 인식

인식은 주체가 객체를 이론적으로 전유(Aneignung)하는 작용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인식 작용이 주체의 실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식의 주체는 인간종(種)이다. 이 인간종의 실천 행위는 자기 삶의 재생산 행위이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노동(Arbeit)과 상호행위(Interaktion)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과 상호작용은 인간종의 형성과정(Bildungsprozesse)을 결정하는 두 개의 실천적인 요소들이다.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며, 상호행위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교류의 영역, 즉 사회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두 핵심 개념인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각각 이러한 인간의 실천 행위의 두 측면인 노동과 상호행위의 경제적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때 칸트가 제기한 인식 가능성의 문제는 초역사적 주체로서의 인간 일반이 지닌 선협적 조건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종의 실천적 삶의 물질적 조건들 아래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입장에서 보면 칸트적 의미의 인식 비판 내지 과학의 자기반성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4.2 관심

하버마스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인식론의 차원에서 표방한 것이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이다. 넓게 보면 관심의 대상은 실천적 삶이다. 인식은 이러한 실천적 삶을 이론적으로 전유하는 작용이므로 인식은 삶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끌려진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인식론의 핵심 용어들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관심이란 엄밀히 말하면 ‘인식적 관심’(Erkenntnisinteresse) 혹은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erkenntnisleitende Interesse)이다.

인식적 관심의 이론은 무엇보다 칸트 전통의 인식 비판 정신에 따라 인식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해명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그래서 이 작업의 출발점은 일단 지식을 인식 주체의 구성적 활동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에 인식 주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하버마스는 칸트와 달리 주체를 무역사적, 비활동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생산과 종의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역사적, 활동적 주체로 설정 한다. 이렇게 설정된 주체는 역사와 사회 현실 및 자연이 모두 인간종의 구성적 노동의 산물이라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 주장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따라서 관심이 인식을 주도한다는 주장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간종의 경험 조직 방식이 삶의 생산 및 종의 재생산을 매개하는 노동과 언어적 상호행위의 관심에 따라 규정된다는 의미이다. 하버마스는 전자를 자연을 통제, 지배하려는 ‘기술적 관심’, 후자를 타자와의 의사소통 관계를 유지하려는 ‘실천적 관심’이라 부른다. 하버마스는 이와 더불어 제 3의 관심도 이야기하는데, 이 관심은 인간종으로 하여금 삶을 반성적으로 전유케 함으로써 자율과 성숙으로 이끄는 관심, 곧 ‘해방적 관심’이다. 이 3가지 관심은 경험 가능성의 ‘선험적’(a priori)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초월적’(transzental)이나, 다른 한편으론 그 조건이 인간의 현실적 삶에 뿌리박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초월적’(quasi-transzental)인 지위에 있는 것이다.

2.4.3 비판

‘비판’이라는 용어가 인식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칸트의 공적이다. 칸트는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 각각 이성이 세계를 전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성 자신이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비판으로 간주했다. 하버마스의 인식적 관심 이론에서도 비판이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칸트의 정신에 따라 인식비판

(Erkenntniskritik)이란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칸트와 달리 하버마스는 인식의 주체를 행위의 주체,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삶의 생산 및 재생산 행위의 주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판은 사회역사적 행위 주체가 어떻게 삶에의 관심에 의해 인도되면서 세계를 전유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과학은 인식적 관심에 의해 인도된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식과 관심이 통일될 때 과학은 인간 삶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유리된 객관주의(Objektivismus)를 넘어 선한 삶을 이념으로 하는 해방적 인식 관심에 의해 유도된다. 하버마스가 보기에 인식과 관심의 통일을 망각한 과학의 자기이해의 대표적인 형태는 객관주의 내지 과학주의(Szientismus)이다. 과학이 자기 자신을 객관주의 내지 과학주의적으로 이해할 경우 과학은 사회역사적 세계의 지배 구조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그래서 인식과 관심의 통일 연관을 해명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을 비판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인식 비판은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2.4.4 해방

인식적 관심 이론에서 ‘해방’이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비판이론 또는 비판지향적 사회과학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종적 주체의 인식적 관심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해방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는 인식 유형의 모델로 정신분석학을 내세운다. 만일 인간종의 형성 과정이 지배와 억압,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화된다면 인간의 자기이해는 부당한 조건들에 의해 불투명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인간종의 관심에 따라 실천적 삶의 맥락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과제를 수행하는 적절한 과학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학의 원형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은 병리적 차원에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개인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를 용이하게 하는 해석틀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인식 유형이다.

해방은 정신분석학처럼 개인의 차원이든 비판이론처럼 인간종의 차원이든 왜곡된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반성의 목표는 인간의 자율과 성숙을 기초로 한 계몽적 삶, 곧 좋은 삶의 영위이다. 하버마스는 해방의 규범적 목표, 곧 지배와 억압,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좋은 삶과 해방의 인식적 관심 사이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은 관습적인 것도 아니요 본질적인 것도 아니다. 선은 상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근저에 놓여 있는 관심,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들 아래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것일 수 있는 해방적 관심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으로 상상되어야 한다.”(EI, 350쪽)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위르겐 하버마스
- 토픽 ID: con_habermas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자
- 상위 토픽: co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Jürgen Habermas

영어 이름: Jürgen Habermas

생애 요약: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생애 연보: 1부 1.3

인물 사진:



원어 웹사이트:

영어 웹사이트: <http://www.habermasonline.org>

한국어 웹사이트: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mod_kant),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mod_hegel),

칼 마르크스 (con_marx),

게오르그루카치(con_lukacs),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con_gadamer),

막스 호르크하이머(con_horkheimer),

테오도르 아도르노(con_adorno)

기여한 철학 분야: 인식론(con_epistemology),

사회철학(con_soc_phil),

정치철학(con_pol_phil)

기여한 철학 학파: 프랑크푸르트학파(con_frankfurt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마르크스주의(con_marxism),

비판이론(con_critical_theory)

주요저작: 이론과 실천(con_habermas_theory),

인식과 관심(con_habermas_know),

의사소통행위 이론(con_habermas_comm)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인식과 관심

• 토픽 ID: con_habermas_know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on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Erkenntnis und Interesse

영어 제목: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1968년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책표지 그림:

원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디지털 텍스트: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con_habermas_know_km.xtm

연관 관계

저자: 위르겐 하버마스(con_habermas)

관계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mod_kant),

게오르그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mod_hegel),

칼 마르크스 (con_marx),

빌헬름 딜타이(con_dilthey)

기여한 철학 분야: 인식론(con_epistemology),

사회철학(con_soc_phil)

기여한 철학 학파: 프랑크푸르트학파(con_frankfurt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마르크스주의(con_marxism),

비판이론(con_critical_theory)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인식

- 토픽명: 실천적 주체의 인식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인식
- 상위 토픽 ID: t_con_cognitio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rkenntnis

영어 용어: Knowledge

한자 표기: 認識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con_habermas)

사용한 철학 문헌: 인식과 관심(con_habermas_know)

사용한 내용 토픽: c1

3.2 관심

- 토픽명: 인식적 관심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관심

- 상위 토픽 ID: t_con_interest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Interesse

영어 용어: Interest

한자 표기: 關心

용어 설명: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con_habermas)

사용한 철학 문헌: 인식과 관심(con_habermas_know)

사용한 내용 토픽: c2

3.3 비판

- 토픽명: 비판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비판
- 상위 토픽 ID: t_con_critiqu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Kritik

영어 용어: critique

한자 표기: 批判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con_habermas)

사용한 철학 문헌: 인식과 관심(con_habermas_know)

사용한 내용 토픽: c1.1

3.4 해방

• 토픽명: 지배로부터의 해방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해방

• 상위 토픽 ID: t_con_emancipatio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manzipation

영어 용어: emancipation

한자 표기: 解放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con_habermas)

사용한 철학 문헌: 인식과 관심(con_habermas_know)

사용한 내용 토픽: c2.1.3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인식 (e1.1)

1.1 인식 비판의 위기 (e1.1.1)

1.1.1 인식 비판의 위기의 실체 (e1.1.1.1 / q1.1.1.2)

1.1.2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상실 (e1.1.2.1)

1.1.2.1 절대지의 과학으로서의 정신현상학 (e1.1.2.1.1)

1.1.2.1.1 초월적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e1.1.2.1.1.1)

/ q1.1.2.1.1.2 / q1.1.2.1.1.3)

1.1.2.1.2 정신현상학 속에서 실종된 인식 비판 (e1.1.2.1.2.1)

/ q1.1.2.1.2.2 / q1.1.2.1.2.3)

1.1.2.2 인식 범주로서의 사회적 노동 (e1.1.2.2.1)

1.1.2.2.1 사회적 노동 (e1.1.2.2.1.1 / q1.1.2.2.1.2)

/ q1.1.2.2.1.3)

1.1.2.2.2 유물론적 종합 (e1.1.2.2.2.1 / q1.1.2.2.2.2)

/ q1.1.2.2.2.3)

1.1.2.2.3 도구주의 인식론 (e1.1.2.2.3.1 / q1.1.2.2.3.2)

/ q1.1.2.2.3.3 / q1.1.2.2.3.4 / q1.1.2.2.3.5)

2. 인식적 관심 (e2.1/ q2.2/ q2.3/ q2.4)

2.1 인식적 관심의 3가지 유형 (e2.1.1)

2.1.1 기술적 관심 (e2.1.1.1)

2.1.1.1 실증주의 비판 (e2.1.1.1.1 / q2.1.1.1.2 / q2.1.1.1.3)

2.1.1.2 콩트의 실증 개념 비판 (e2.1.1.2.1 / q2.1.1.2.2)

/ q2.1.1.2.3)

2.1.1.3 마호의 현상주의 비판 (e2.1.1.3.1 / q2.1.1.3.2)

/ q2.1.1.3.3 / q2.1.1.3.4)

2.1.1.4 퍼스의 탐구 논리 (e2.1.1.4.1)

- 2.1.1.4.1 탐구 논리에서 인식과 행위의 관련성 (e2.1.1.4.1.1
/ q2.1.1.4.1.2 / q2.1.1.4.1.3 / q2.1.1.4.1.4)
- 2.1.1.4.2 탐구 논리의 도구적 행위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e2.1.1.4.2.1 / q2.1.1.4.2.2)
- 2.1.2 실천적 관심 (e2.1.2.1)
- 2.1.2.1 딜타이의 이해 이론 (e2.1.2.1.1)
- 2.1.2.1.1 정신과학의 방법론 (e2.1.2.1.1.1/ q2.1.2.1.1.2
/ q2.1.2.1.1.3)
- 2.1.2.1.2 자아동일성의 형성 (e2.1.2.1.2.1 / q2.1.2.1.2.2
/ q2.1.2.1.2.3/ q2.1.2.1.2.4)
- 2.1.2.2 해석학적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 (e2.1.2.2.1
/ q2.1.2.2.2 / q2.1.2.2.3)
- 2.1.3 해방적 관심 (e2.1.3.1 / q2.1.3.2)
- 2.1.3.1 반성적 이성의 관심으로서의 해방적 관심 (e2.1.3.1.1
/ q2.1.3.1.2)
- 2.1.3.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e2.1.3.2.1)
- 2.1.3.2.1 심층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 (e2.1.3.2.1.1
/ q2.1.3.2.1.2/ q2.1.3.2.1.3 / q2.1.3.2.1.4)
- 2.1.3.2.2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구조(e2.1.3.2.2.1
/ q2.1.3.2.2.2/ q2.1.3.2.2.3)
- 2.1.3.2.3 정신분석학에서 이해와 설명 (e2.1.3.1.3.1
/ q2.1.3.1.3.2 / q2.1.3.1.3.3)

제 3 부 『인식과 관심』 내용 분석 연구

1. 인식

(e1.1) 하버마스는 인식을 실천적 주체가 세계를 이론적으로 전유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실천 행위는 삶의 생산과 재생산 행위이다. 실천은 노동과 상호행위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노동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이며, 상호행위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교류의 영역, 즉 사회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경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추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일반이 지닌 천험적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종의 삶의 활동, 즉 노동과 상호 작용의 사회역사적 조건들 아래에서만 해명될 수 있다.

1.1 인식 비판의 위기

(e1.1.1) 인식 비판은 칸트 아래로 인식론의 주된 과업이었다. 칸트적 의미의 인식 비판이란 이성의 경험초월적 인식에 대한 이성의 자기비판이며, 그 목적은 인간 경험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식 비판은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이다. 인식 주체를 실천적 주체로 간주하는 하버마스의 인식 비판은 인식의 실천적 연관성, 즉 인식적 관심과의 연관성을 망각하는 모든 형태의 과학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서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은 자신의 삶의 사회역사적 조건에 대한 반성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칸트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를 거치면서 인식론은 인식 주

체의 자기반성이라는 자신의 본래 임무를 차츰 상실해갔다. 세계에 대한 인간 경험의 과학이 실증주의 내지 과학주의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식론은 과학 이론 내지 방법론으로 축소되었다.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은 하버마스 이전 이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의 핵심 주제였다. 일찍이 호르크하이머는 이론 성립에 있어서 그것의 발생연관과 적용연관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론이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실천과의 연결 고리를 부정하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과학의 객관주의는 과학이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에 굴복한 결과이다. 비판이론의 제 2세대를 이끈 하버마스가 인식 비판을 통해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은 비판이론의 이러한 강령을 인식론의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1 인식 비판의 위기의 실체

(e1.1.1.1) 하버마스는 근대 지성사에서 실증주의, 과학주의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첫째, 자연과학을 필두로 한 경험분석적 과학이 세계 인식의 유일한 형태가 되었으며, 둘째 인식론이 과학 비판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포기하고 과학을 방법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 비판의 위기는 이처럼 인식론이 과학 이론 혹은 방법론으로 전락한 현상에서 비롯한다.

(q1.1.1.2) 물론 엄밀한 수학적 인식과 충분히 조절된 경험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통일시킨 현대물리학이 항상 명석하고도 판명한 지식을 위한 모범이었지만, 근대 과학은 인식 일반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그 시대의 철학이 과학에 대하여 가지는 위치는, 바로 그릇되지 않은 철학적 인식이 과학에 비로소 하나의 적절한 위치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워졌다. 인식론은 경험과학적 인식의 설명에 제한되지 않으며 과학 이론을 탐구하지 않는다.(『인식과 관심』, 11쪽. 일부 수정)

(q1.1.1.3) 또 한편 타당한 과학을 초월하는 인식의 개념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식 비판이 과학 이론으로 전락한다. 과학 이론은

확정된 탐구의 사이비 규범적인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일찍이 인식론이라는 명칭에 의해 지시될 수 있었던, 과학에 대한 철학의 위치는 철학적 사유의 운동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위치로부터 철학은 철학에 의해 배제되었다. 이제부터 인식론은 철학적 사유를 떠난 방법론에 의해 대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19세기 중반 이래로 인식론의 유산으로 등장하는 과학 이론은 과학의 과학주의적 자기이해에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인식과 관심』, 12쪽. 일부 수정)

1.1.2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상실

(e1.1.2.1) 인식 비판은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산물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은 칸트 이후로 상실되어 왔다.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은 이론 이성을 포괄적 이성의 한 범주로,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을 가능한 인식의 한 범주로 여길 때 가능하다. 그러나 헤겔은 과학을 절대지(absolutes Wissen)의 과학, 곧 철학과 동일시함으로써, 마르크스는 과학을 자연과학과 유사하게 도구주의적으로 축소된 형태로 이해함으로써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력의 상실을 가져왔다. “칸트 이후로 과학은 철학적으로 더 이상 진지하게 파악되지 않았다.”(『인식과 관심』, 12쪽)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이러한 인식 비판의 상실, 곧 인식론의 포기가 칸트 이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음을 뜻한다.

1.1.2.1 절대지의 과학으로서의 정신현상학

(e1.1.2.1.1) 하버마스에 의하면 칸트에 대한 헤겔의 비판은 칸트적 의미의 인식 비판의 논리가 초월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된다. 헤겔은 칸트가 전제하는 선형적 인식 조건들의 발생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현상학적 경험을 도입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 헤겔의 현상학적 경험은 과학을 가능한 지식의 한 범주로 비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절대지의 과학 속으로 용해함으로써 오히려 인식론을 폐기한 결과를 낳는다.

1.1.2.1.1 초월적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e1.1.2.1.1.1)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의 인식 비판에 대한 헤겔의 메타비판은 칸트 인식론의 근원철학(Ursprungsphilosophie)적 의도를 향한 것이다. 칸트의 인식 비판은 인식의 선형적 형식을 갖는 초월적 의식을 확고부동한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인식 비판의 논리는 순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험 비판의 전제인 선형적 형식은 사실상 경험적 의식 형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헤겔에 의하면 이러한 경험적 의식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반성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현상학적 경험이다.

(q1.1.2.1.1.2) 헤겔의 논의는 단호하다. 그것은 근원철학의 의도에 대립한다. 왜냐하면 인식론이 불가피하게 얹혀 들어가는 순환은 다음의 사실을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즉 인식 비판은 근원의 자발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으로서 선행하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인식 비판 자체는 선행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후행적인 것으로 판정받는 인식 비판은 자신이 우선 경험적으로 만나는 의식 형성(Bewußtseinsformation)과 관련한다.(『인식과 관심』, 15쪽)

(q1.1.2.1.1.3) 헤겔은 인식 비판의 전제들을 자기비판에 종속시키면서 인식 비판의 발달을 철저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초월적 의식의 형식적으로 확고부동한 기초를 파괴시킨다. 이러한 기초에서는 선형적 및 경험적인 규정, 타당성, 그리고 발생 간의 초월적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상학적 경험은 초월적인 규정 자체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움직인다. 현상학적 경험에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점이 없다. 오직 반성 자체의 경험만이 형성 과정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설명된다. 반성 경험은 – 이에 관하여 우선 명백한 비판적 의식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향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 인류의 역사상 구성적 경험이 소유하는 체계적 반복을 통해 재구성된다.(『인식과 관심』, 26쪽)

1.1.2.1.2 정신현상학 속에서 실종된 인식 비판

(e1.1.2.1.2.1) 하버마스는 칸트의 인식 비판에 대한 헤겔의 메타비판

이 인식 주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인식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자연적 주체의 실천적 행위의 산물로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 헤겔에 있어서 과학은 가능한 인간 경험의 한 범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절대지의 과학으로 완성되어가는 의식의 반성적 경험 과정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다. 헤겔은 칸트의 인식 비판을 의식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철저히 밀고 나가고자 하나, 그의 동일철학적(identitätsphilosophisch) 전제는 인식 비판을 도리어 절대지의 과학 속으로 흡수시키고 만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헤겔의] 현상학은 출발점에서부터 인식 비판의 작업에서 해방되었다.”(『인식과 관심』, 31쪽)

(q1.1.2.1.2.2) 인간중의 형성 과정의 성과들로부터 현상학적 관찰에 고유한 입장의 기원이 밝혀질 경우 비판적 의식은 – 이 의식과 아울러 바로 인식론이 고찰되게 되는데 — 현상학적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끝부분에서 비판 의식은 절대지라고 주장 한다. 헤겔은 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였다. 사실 그는 이 증명을 이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현상학적 과정에 관한 형식적 조건을 자연사를 통하여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탐구의 발단을 따라서 절대적 지식은 인류와 자연이 통일되는 형성 과정의 체계적 반복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인식과 관심』, 27쪽)

(q1.1.2.1.2.3) 헤겔은 현상학적 탐구로써 인식 비판의 발달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즉 현상학적 경험은 절대정신의 운동의 매개물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절대적 지식에서 필연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칸트에 대한 고유한 비판의 관점을 가진 논의를 추종하였다. 동일철학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적인 연결점이 해결된다. 즉 실은 인식 비판의 발단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현상학적인 의식의 구성은, 오직 가상에만 불가피하게 종속되는 의심의 선형적 제한을 봉괴시킨다. 그러나 그러한 구성은 결코 언제나 절대적 지식으로 향하는 입구를 보증하지 않는다.(『인식과 관심』, 27쪽)

1.1.2.2 인식 범주로서의 사회적 노동

(e1.1.2.2.1) 하버마스에 의하면 헤겔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인식 주체의 형성 과정을 유물론적으로 전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마르크스는 인식 주체를 실천적 행위 주체로 간주한다. 여기서 노동은 인식론의 기본 범주로 등장한다. 즉 “(노동, 즉) 대상적 행위의 체계는 사회적 삶의 가능한 객관성의 선형적인 조건을 형성한다.”(『인식과 관심』, 35쪽) 노동은 자연적 주체의 단순한 자연 과정을 넘어서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이 된다. 이런 까닭에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유물론적 의미에서의 종합”(Synthesis im materialistischen Sinne)(『인식과 관심』, 38쪽)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결함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를 노동이라는 도구적 행위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만일 인식 주체의 형성 과정이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과학의 자기이해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의 확장, 즉 자연과학의 성장을 유도하는 실증주의로 경도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 주체의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반성과 비판의 활동은 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천적 상호작용에서 찾아져야 한다.

1.1.2.2.1 사회적 노동

(e1.1.2.2.1.1)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은 인간 주체가 자연이라는 객체에 자신의 본질력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객체를 변형하여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주체의 활동이다. 이런 까닭에 노동은 대상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상적 활동이다. 이 점은 노동이 세계에 대한 가능한 경험의 조건임을 뜻한다. 즉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은 “인식론적 범주”(『인식과 관심』, 35쪽)이다. 노동은 또한 인간 삶의 자연필연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수행된다. 노동은 곧 사회적 노동이다. 이 점은 노동을 통한 세계 경험이 사회역사적 삶의 조건에 의해 한계 지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q1.1.2.2.1.2) 만일 마르크스가 종래의 유물론의 주된 결점을 “대상과 현실성 및 감성이 감각적인 인간의 활동인 실천(Praxis)이 아니라, 즉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이나 직관의 형태에서 파악되어진다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면”, “대상적 활동”은 대상 구성의 특수한 의미를 획득한다. [...] 대상적 활동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선협적 완성으로 파악된다. 이 활동은 세계 구성에 일치한다. 이 세계에서 현실성은 가능한 대상의 객관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나타난다. 또 한편 마르크스는 앞에서의 선협적 완성을 실제적인 노동 과정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본다. 세계 구성의 주체(Subject der Weltkonstitution)는 선협적 의식 일체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는 구체적인 인간이다.(『인식과 관심』, 34쪽)

(q1.1.2.2.1.3) 만일 마르크스가 산업사에서,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체계 발전에서 “인간 본질력에 관한 개방된 책을, 즉 감각적으로 앞에 놓인 인간적인 심리학을” 인식한다면, 그는 경험적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구성 연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오감의 형성은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사의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을 문자 그대로 뜻한다. 역사에 관한 유물론적 탐구는 사회의 범주를 목표로 한다. 이 범주는 실제의 삶의 과정과 아울러 삶의 세계에 대한 제도의 선협적 조건을 규정한다.(『인식과 관심』, 37쪽)

1.1.2.2 유물론적 종합

(e1.1.2.2.2.1)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노동 개념을 인식론의 기본 범주로 규정하면서 그 특징을 유물론적 의미의 종합에서 찾는다. 물론 여기서 ‘종합’이란 용어는 인간과 자연의 종합을 의미하되, 칸트처럼 사유의 차원에서 초월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뜻한다.

(q1.1.2.2.2.2) 유물론적 의미의 종합은 우선 그것이 하등의 논리적 연관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념론과 철학의 칸트, 피히테, 헤겔에 의해 발전된 개념과 구분된다. 종합은 선협적 성취가 아니며 절대 자아의 설정 또

는 절대 정신의 운동이 전혀 아니고, 역사적으로 산출되는 인류 추제의 경험 적이자 선형적인 성취이다. [...] 만일 마르크스가 종합을 사유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매개체에서 완성시킨다면, 종합을 봉괴시키는 기체는 사회적 노동의 체계이자 상징의 연관이 아니다. 종합적 성취의 재구성을 위한 연결점은 논리가 아니라 경제이다. 규칙적인 상징의 첨가가 아니라 사회적 삶의 과정, 물질 생산과 생산의 획득은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능력을 의식에 소화하기 위하여 반성이 부가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종합은 더 이상 사고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물질 생산으로 나타난다.(『인식과 관심』, 38쪽)

(q1.1.2.2.3) 칸트의 근원적인 통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유물론적인 종합 개념에서 형식과 내용의 차이는 명백하다. 그런데 형식은 우선 오성 범주가 아니라 대상적 활동의 범주이다. 그리고 가능한 대상에 관한 객관성의 통일은 선형 의식에서 형성되지 않고 도구적 행위의 작용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 주어진 재료는 – 인식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 그런데 만일 우리가 노동 과정의 요소들을 인식 과정의 요소들과, 말하자면 노동 재료, 노동 기구, 그리고 노동을 지각 재료, 오성 범주 및 상상력과 비교한다면 칸트와 마르크스의 고유한 차이가 나타난다. 상상력에 의한 직관 재료의 종합은 오성 범주 아래에서 자신의 필연적 통일을 간직한다. 종합의 이러한 선형적 규칙은 순수한 오성 개념으로 의식 일반의 내면적이고 불변적인 목록이다. 노동력에 의한 노동 재료의 종합은 노동하는 인간의 범부 아래에서 자신의 사실적 통일을 소유한다. 종합의 이러한 기술적 규칙은 보다 발전된 의미에서 감각적 존재를 기구로 취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변하는 사회의 목록에 속한다.(『인식과 관심』, 42쪽)

1.1.2.2.3 도구주의 인식론

(e1.1.2.2.3.1)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에게서 나타나는 유물론적 종합이 도구주의적 인식론으로 전개된다고 비판한다. 노동은 오로지 자연에 대한 통제력, 즉 생산력의 확장에만 기여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한 인간의 세계 경험은 자연의 기술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객관적으로 파악된다. 인식 주체가 노동을 통해 자연을 전유하는 것은 피히테적 계기, 즉 자아가 비아를 정립시킴으로써 자아가 자신 속으로 복귀하는 행위와

흡사하다. 단 노동 주체의 의식의 동일성은 생산력의 역사적인 발전 상태 및 생산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만 다르다. 그러나 하버마스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종합이 갖는 도구주의적 성격은 인식 주체의 실천 행위를 노동으로 환원시킨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마르크스의 사회 이론은 도구적 행위가 실현되는 생산력 이외에도 비도구적인 실천 영역인 사회제도 영역, 곧 생산관계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인식론적 의의를 지닌 실천 영역은 전자에 국한되어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간종의 유물론적 자기형성 과정은 비도구적인 상호작용 영역에도 걸쳐 있다. 인간종의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반성과 비판적 활동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서처럼 노동 주체로 환원된 인식 주체의 세계 경험은 자연과학과 친화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부터 상호작용의 세계에 대한 인간과학은 배제되기에 이른다.

(q1.1.2.2.3.2) [마르크스에게서] 사회적 노동을 통한 종합 개념에서 [주객 통일이라는] 칸트적인 계기는 도구주의적 인식론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인식론은 노동 과정에 관한 선협적인 연관성을 의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관성 내에서 경험 기관과 인식의 객관성은 자연의 기술적 효용성이라는 관점 아래서만 가능해진다.(『인식과 관심』, 43-44쪽)

(q1.1.2.2.3.3) 마르크스는 인류의 자연사적인 자기 구성에 관한 생각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하나는 자기산출 과정(Selbsterzeugungsprozeß)인데, 이것은 사회적 노동 주체의 생산활동에 의해서 추진되며 또한 생산력에 의해 축적된다. 또 하나는 형성과정(Bildungsprozeß)인데, 이것은 계급의 비판적 혁명적 활동에 의해서 추진되며 반성 경험에 의해 축적된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기 구성을 재구성하여야 할 과학의 위치를 그의 비판으로서는 해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과 자연에 관한 유물론적 종합의 개념이 도구적 행위의 범주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 지식은 정당화되었지만 반성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의 모델은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에 적합하지 않았다.(『인식과 관심』, 282쪽)

(q1.1.2.2.3.4) 마르크스는 단 한 번도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 이행되

어온 인간에 관한 과학의 확정된 의미를 자연과학의 도구적 의미와 구별여 명백히 논의한 일이 없다. 물론 그 자신이 인간에 관한 과학을 자연과학으로서가 아니라 비판의 형식에서 성립시키기는 했어도 그는 언제나 인간에 관한 과학을 자연과학의 편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는 사회이론의 인식비판적인 정당화를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인식과 관심』, 53쪽)

(q1.1.2.2.3.5) 만일 마르크스가 자신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회이론의 방법론적인 전제만을 반성하고, 거기마다 생산의 범주 영역에 제한된 철학적 자명성을 첨가시키지 않았더라면 엄밀한 경험과학과 비판의 차이는 은폐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마르크스가 노동과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실천이라는 제목에 종속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대신에 유물론적인 종합 개념을 도구적 행위의 이행과 대화적 행위의 연관에 똑같이 관련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 관한 과학의 이념이 자연과학과의 동일화에 의하여 은폐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러한 이념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결국 철저한 인식 비판은 인류 역사의 재구성이 라는 형태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식과 관심』, 71쪽)

2. 인식적 관심

(e2.1) 하버마스가 인식과 연결시키는 ‘관심’이라는 용어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 또는 간단히 줄여서 “인식적 관심”이다. 관심이 인식을 주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경험 조직 방식이 그의 삶의 생산 및 재생산을 매개하는 노동과 상호작용의 관심에 따라 조건지워진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인식 주체 내지 경험 주체는 초역사적, 관조적 주체가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실천적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하버마스의 인식적 관심 이론에 따라 인식과 관심의 통일적 연관을 인정할 경우, 세계가 합법칙적 연관으로 기술될 수 있는 사실들의 종체로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객관주의적 인식 이념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환상은 사실이 구성되는 과정을 은폐함으로써 인식을 삶의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독립시킨다. 이런 이유로 인식적 관심은 현실이 구성되는 관점을 정초하려는 인식론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관심은 인간종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인간 경험의 “유사초월적” 조건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인식적 관심이 유사초월적인 까닭은 그것의 형식이 보편성을 갖기는 하나 그 내용이 사회역사적으로 조건 지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식 비판은 오직 사회비판으로서만 가능하다.”(EI, 9쪽) 인식적 관심이 사회역사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그의 인식적 관심 이론, 곧 사회인식론이 사회철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버마스에 있어서 인식적 관심 개념을 근본 개념으로 하는 사회인식론은 사회비판이론이자 사회철학인 셈이다.

(q2.2)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은 [...] 인류의 형성 과정에 관한 논리와 아울러 인류의 자연사를 매개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이 논리를 어떤 자연 기반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주장될 수는 없다. 인류의 가능한 재생산과 자기 구성이라는 특정한 근본 조건에, 말하자면 노동과 상호작용에 부착되어 있는 근본 자세를 나는 관심이라 부른다.(『인식과 관심』, 199쪽)

(q2.3)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제기된 생명 보존의

문제에 적합하다. 생명 보존은 실존 자체의 문화적 형식에 의하여 해명되어진 것이다. 노동과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학습 과정 및 이해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인류의 형성 과정이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학습 과정 및 이해 과정은 특정한 발전 단계로부터 방법적인 탐구 형식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삶의 재생산(die Reproduktion des Lebens)은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노동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과 상호작용의 존재 조건에 결부되는 인식 관심은 재생산과 종보존에 관한 생물학적인 연관 영역에서 파악될 수 없다. 사회적인 삶의 재생산은 –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은 삶의 재생산에 관한 단순한 기능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 재생산의 문화적인 조건으로의 복귀, 즉 이미 인식을 두 가지 형태로 내포하는 형성 과정으로의 복귀 없이는 전혀 충분히 특징지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인식 관심’(Erkenntnisinteresse)은 고유한 범주로서, 이것은 마치 동기적인 규정과 인식적인 규정 사이에서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그리고 선형적 또는 사실적인, 그리고 기호적인 규정 사이의 구분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인식과 관심』, 199-200쪽)

(q2.4) 행위와 연관된 가능한 경험의 대상은 구성된다. 그리고 주장된 경험이나 의견은 여러 가지 경험 영역과 행위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주장이 근거 정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주제화되고 논의의 명제로 변형된다면, 이들 주장은 오직 하나의 관점에서 자신이 삶의 실천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연관성과의 연결을 상실한다. 즉 삶의 실천에서 상정된 타당성의 요구는 보류되고 겸증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이 연결은 보존되어 있다. 이론적 지식을 형성하는 준거 구조에 대응하는 전(前) 과학적 경험의 연관성 및 행위 연관성의 논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논의에 의하여 정립된 이론적 명제 또한 단지 다시금 특수한 사용 연관성에 부여될 뿐이다. 이 점에서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이 드러난다.(『인식과 관심』, 327-328쪽)

2.1 인식적 관심의 3가지 유형

(e2.1.1) 인식적 관심의 유형은 사회역사적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종의

활동 범주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마르크스가 자연과학과 인간 과학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 따라서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출처가 의사소통 영역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까닭은 그가 인간의 실천 행위를 노동 혹은 생산적 활동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인간의 실천 영역을 노동 영역과 상호행위 영역으로 구분한다. 노동 영역에서 인간종의 삶에 대한 관심은 자연을 통제하려는 기술적 관심이며 상호행위 영역에서의 관심은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가능성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실천적 관심이다. 이러한 상이한 삶에의 관심에 따라 인간종의 인식 유형 또한 서로 구별되는데, 기술적 관심에 의해 유도되는 인식의 유형이 경험분석적 과학이고, 실천적 관심에 의해 유도되는 인식 유형이 역사해석학적 과학이다. 마지막으로 해방적 관심이라 불리는 세 번째 인식적 관심이 있다. 이 관심은 앞의 두 관심에 비해 “파생적 위치”(『인식과 관심』, 328쪽)에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앞의 두 관심이 각각 노동과 상호행위라는 사회 체계의 구성 요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해방적 관심은 “삶의 실천, 즉 체계적으로 훠손된 교체의 조건들, 그리고 외견상 정당한 억압의 조건들 아래에서 비로소 성립한 ‘대상 영역’과 이론적 지식과의 연관성을 확보”(『인식과 관심』, 328-329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해방적 관심은 노동과 상호행위의 영역에서 지배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종의 왜곡된 경험과 자기이해로부터 벗어나려는 관심, 곧 인간종의 형성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기반성과 성숙에의 관심과 같은 것이다. 하버마스가 거명하는 세 번째 인식 유형인 비판지향적 과학 내지 비판이론은 이러한 해방적 관심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다.

2.1.1 기술적 관심

(e2.1.1.1) 기술적 관심은 경험분석적 지식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유사초월적 조건이다. 『인식과 관심』에서 하버마스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을 통해 이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실증주의의 객관주의적 환상이 결국 인식과 인식 주관 사이의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비판의 계기를 페스와 딜타이에게서 찾고자 한다. 경험분석적 과학이 인간 주체의 기술적 관심에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하버마스의 작업은 특히 페스에 대한 성찰에서 밝혀진다. 그는 페스의 실용주의적 과학관을 검토하면서, 과학이 도구적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체계화하고 정식화하는 역할을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도구적 행위라 함은 인간 삶의 외적 조건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경험분석적 과학은 인간의 생존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연에 대한 기술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관심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2.1.1.1 실증주의 비판

(e2.1.1.1.1) 인식론의 과제는 가능한 인식의 조건에 관한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이러한 인식론의 종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실증주의는 가능한 인식의 조건에 관한 물음을 과학이론의 구성 및 테스트의 규칙 수립을 위한 방법론적 물음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즉 “실증주의는 과학 자체에 대한 신앙을 독단화시키면서 인식론적인 자기반성에 대립하는 탐구를 은폐”시킨다.(『인식과 관심』, 73쪽)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실증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론과 방법론을 동일시함으로써 과학적 인식을 인식 주관과의 연관성 하에서 고찰하지 못하며, 그 결과 과학적 지식의 자명성에 경도되어 객관주의로 빠진다는 점이다.

(q2.1.1.1.2) 가능한 인식의 조건에 대한 물음은 언제나 보편적인 발생사와 아울러 해명된다. 모든 역사는 그것이 행위이든 운명이든 간에 주관의 행위와 운명에 관하여 알려준다. 주관은 이를 행위와 운명에 의하여 비로소 주관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과학이론은 인식 주관에 대한 물음을 벗어난다. 과학이론은 명제와 행동 방식에 관한 체계로서 부여되는, 말하

자면 규칙의 복합으로서 – 이 규칙에 따라서 이론이 성립되어 고찰되는 데 – 부여되는 과학으로 직접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주관은 방법론에 제한된 인식론에 맞서 자신의 의미를 상실한다.(『인식과 관심』, 74쪽)

(q2.1.1.1.3) 실증주의의 입장은 세계 구성의 문제(die Problematik der Weltkonstruktion)를 은폐시킨다. 엄밀한 인식이라는 이름에서 보면 – 인식의 의미 자체는 비합리적으로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인식이 실재(Realität)를 묘사한다는 소박한 표상이 지배하게 된다. 여기에 진리의 모사론이 일치한다. 이 모사론에 따라서 언명과 사태의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배열은 동형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객관주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콩트(Comte)의 실증주의와 아울러 과학 이론의 간판으로 남아 있다.(『인식과 관심』, 75쪽)

2.1.1.2 콩트의 실증 개념

(e2.1.1.2.1) 하버마스에 의하면 콩트는 마흐(Mach)와 더불어 옛 실증주의를 대표하는 자이다. 옛 실증주의의 과제는 “실증 정신을 관철시키는 역사로서의 인류 역사의 구성에 의하여 과학 자체에 대한 과학론적인 신앙을 정초”(『인식과 관심』, 77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콩트는 ‘실증적인 것’(das Positive)을 과학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방법론적 규칙 수립의 지침으로 이해했다. 그에게서 실증적인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das Metaphysische)과 대립된다. 즉 실증적인 것은 상상적인 것(das Eingebildete), 비결정적인 것(das Unentschiedene), 비규정적인 것(das Unbestimmte), 공허한 것(das Eitle), 절대적인 것(das Absolute) 등에 각각 대립하는 ‘사실적인 것’(das Tatsächliche), ‘확실한 것’(das Gewisse), ‘정확한 것’(das Genaue), ‘유용한 것’(das Nützliche), ‘상대적인 것’(das Relative) 등을 가리킨다. 물론 콩트에게서 과학적 지식, 즉 실증적 방법에 의해 획득된 지식은 객관적인 자명한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실증적인 것의 개념에서 비롯하는 이러한 과학의 자명성은 필연적으로 철학적인 인식 개념과 대립될 수밖에 없

다. 즉 콩트의 실증주의처럼 과학의 자명한 객관 영역이 실증적인 방법론에 의해 제한된다면, 과학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려는 사실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물음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q2.1.1.2.2) 사실적인 것과 단순히 상상적인 것의 대립은 과학과 형 이상학간의 엄밀한 분리에 대한 기준을 부여한다. 우리들의 지성은 ‘정초 할 수 없는 신비를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탐구 대상을’ 향 하여야 한다.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제기는 가능한 학문적 분석의 객관 영역이 ‘사실’에 제한된다는 것에 의하여 제거되기 때문에 실증주의는 무의미한 문제 제기를 제거하려 한다. 그런데 콩트는 사실과 상상 사이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것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을 통하여 탐구하지 않는다. 엄밀한 과학의 객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로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객관 범위의 제한은 어떻게 학문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귀환한다. 실증주의에 의하여 허락된 지평에서 과학은 단지 방법론적인 규칙에 의해서 정의된다. 과학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된다.(『인식과 관심』, 79쪽)

(q2.1.1.2.3) 인식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주의의 요구는 인식론적으로 대립된 두 가지 전통의 결합에서 연유한다. 경험론으로부터 콩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빌려 온다: 즉 과학적 인식은 기술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한다: 즉 우리들의 모든 건전한 이론은 [필연적으로] 성과 없는 호기심의 공허한 만족과 반대로 – 우리들의 개별적이며 집단적, 영속적인 개선에 관계한다. 과학과 기술의 조화는 이와 같다. 과학은 사회 및 자연의 과정에 관한 기술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인식과 관심』, 81쪽)

2.1.1.3 마호의 현상주의

(e2.1.1.3.1) 마호의 현상주의(Phänomenalismus)는 콩트와는 달리 과학의 대상 영역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을 시도한다. 마호는 과학의 대상을 직접적인 감각 경험(Empfindungen)에 주어지는 현상들에 국한시킨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이를테면 의식이니 사물이니 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들을 구성하는 경험적 요소(Elementen)들이다. 그래서 하버

마스는 사실에 대한 마호의 존재론적 규정을 요소설(Elementenlehre)이라고 부른다. 마호의 요소설은 과학으로부터, 의식 및 사물의 통일성과 같은 관찰불가능한 실재(Realität)를 가정하는 형이상학을 배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이론은 과학의 객체 영역을 감각 경험과 동일시함으로써 현상과 실제, 지식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제 의식과 사물은 베클리의 경험주의적 주장처럼 한낱 주관적 감각 경험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마호의 현상주의가 목표로 하는 객관주의는 오직 감각 경험에 주어지는 것들만을 기술하는 데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식론은 곧 방법론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식이 이처럼 오로지 감각 경험에 기초한 실재의 전유 방법으로 축소될 경우, 나아가 이러한 방법이 과학의 객체 영역을 규정할 경우 과학과 반성은 분리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관찰불가능한 인식 주체의 반성 능력은 감각적으로 현상하지 않는 것,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가정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q2.1.1.3.2) [마호의 요소설에 따르면] 사실은 감각적 경험 속에서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 동시에 그것들은 상호주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 갖는 확고부동성(Unverrücktheit)과 확실성(Unbestreitbarkeit)를 가진다. 사실의 사실성은 한 사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의 확실성과 동시에 그러한 사태가 모든 주체에 대해 외적으로 실존한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 그러므로 마호가 추구하는 사실이라는 기초는 현상주의와 물리주의 편에 있는 현실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감각과 물체가 사실을 확증한다. 사실들은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구별과는 무관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물체 세계에 속하는 사물들은 우리가 흔히 자아와 동일시하는, 하나의 신체에 결부된 감각 경험들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마호는 대체로 ‘요소’와 ‘감각 경험’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 (EI, 105쪽, 팔호 필자)

(q2.1.1.3.3) [마호의] 요소설은 현실을 사실의 전체로서 파악한다. 의식 뿐만 아니라 사물의 통일성은 한결같이 삶에 유용한 허구로 폭로되며, 사실의 복합으로 환원된다. 이럴 경우 우리들은 사실들 간의 합법칙적인 관계를

서술하는 과학 자체에 대해서도 그 배후를 물을 수 없다(hintergehen). 즉 과학은 으뜸(das Erste)이며, 과학의 객관성의 조건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마호가 제한하는 과학주의적 개념 형성을 위한 보편적인 범주들은 과학을 그런 것으로 문제시하는 것을 금한다. 인식의 객관성은 인식 주관의 지평에서 파악될 수 없고 오직 객체 영역으로부터만 도출될 뿐이다.(EI, 110쪽, 팔호 필자)

(q2.1.1.3.4) 요소설은 현실에 대한 하나의 풍부한 해석을 제공한다. 동시에 그것은 인식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데 만족한다. 요소설의 고유한 지위는 모순에 가득차 있다. 즉 요소설은 사실의 총체를 과학의 객체 영역으로 해명하고 사실 복제(Verdoppelung der Tatsachen)로서의 과학을 형이상학과 경계 지음으로써, 과학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반성도, 따라서 그 자신조차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요소설은 과학의 반성 형태이기는 하나 과학을 넘어서는 그 어떤 반성도 금지하는 반성 형태이다.(EI, 112쪽)

2.1.1.4 페스의 탐구 논리

(e2.1.1.4.1) 하버마스에 따르면 페스의 과학적 탐구 논리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경험분석적 과학의 실증주의적 자기이해에 반대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은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인식 주관의 행위를 배제하는 객관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이에 반해 페스의 탐구 논리는 과학을 콩트나 마호처럼 객관적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도구적 행위의 성공적 수행 절차를 정식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페스의 탐구 논리는 사실이 경험과 행동의 특정한 구조를 통해 구성된다는 인식론 본래의 취지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비판에 따르면 페스의 탐구 논리는 탐구 행위의 도구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탐구 행위의 전체 조건인 탐구자들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2.1.1.4.1 탐구 논리에서 인식과 행위의 관련성

(e2.1.1.4.1.1) 페스는 과학의 객체 영역과 인식 주관의 지평을 분리

시키는 실증주의의 객관주의적 탐구 방법을 벗어나, 과학의 논리와 탐구 행위의 결합을 통해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과학에 대한 반성의 목표는 인식과 탐구, 그리고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의 기초를 인간의 실천 행위 속에서 찾고자 하는 점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퍼스의 탐구 논리에 들어 있는 중요한 생각은 과학이 객관적인 것으로 상정된 실재 내지 사실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구적 행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절차들을 체계화하고 정식화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구의 과정은 인간이 자연과의 교류에서 장애를 만났을 때(문제상황)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하며 그 결과를 다시 가설로 피드백하는 일련의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르면 자연과학적 지식은 객관적 실재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행위의 주체에 의해 초월논리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경험분석적 과학의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획득된 인식은 인간의 도구적 행위의 체계 안에 들어 있는 학습과정의 반성형식이다.

(q2.1.1.4.1.2) 퍼스는 구실증주의 및 신실증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찰을 구분한다. 즉 방법론은 과학이론의 논리적 구성이 아니라 과학 이론의 ‘획득’에 도움이 되는 절차의 논리(die Logik des Verfahrens)를 해명해야 한다. [...] 근대 과학의 진정한 성과는 우선 우리가 실재라고 명명하는 것에 관한 참된, 즉 정당하고 적확한 언명을 산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과학이 전통적인 지식 범주와 구별되는 까닭은 우리의 관점에 관한 강제 없고 지속적인 합의를 달성하려는 하나의 방법 때문이다.(EI, 116-117쪽)

(q2.1.1.4.1.3) 또 한편 탐구의 논리는 탐구 과정을 세계 구성적인 삶의 실천으로 초월 논리의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탐구의 논리는 더 이상 객관주의적 입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인식이 인식 주관으로부터 분리되는 실재의 기술로 나타난다. 퍼스는 과학의 객체 영역으로서의 현실이 탐구과정 전체의 조건 아래서만 비로소 구성된다고 통찰한다. 그는 사실의 존재론화를 벗어나 있다. 강력한 과학

적 방법에 의하여 강제 없고 지속적인 합의가 산출되는 그러한 언명만이 ‘참된’ 것으로 통용된다면, ‘실재’란 우리가 거기에 대해 궁극적인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태의 총괄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하나의 초월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가능한 경험 대상은 초월적 의식의 범주적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규제하는 누적적 학습과정으로서의 탐구과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된다.(EI, 121쪽)

(q2.1.1.4.1.4) 가능한 인식의 초월적 조건이 의식 일반이 아니라 행위 영역으로부터 설정되므로, ‘가능성’이라는 초월적인 개념 또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있을 수 있는 조작의 가능한 결과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어진 조건들 아래서만 발생한다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런 조작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도구적 행위의 초월적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내가 조작을 통해 현실에 개입할 때, 또 그런 한에서 현실을 통해 경험하는 교훈이다. 나는 반드시, 가능한 도구적 행위의 성공이나 실패의 사실적인 조건들 아래서만 초월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다.(EI, 166쪽)

2.1.1.4.2 탐구 논리의 도구적 행위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e2.1.1.4.2.1) 앞에서 지적했듯이, 퍼스의 실용주의 과학관은 과학적 지식 구성과 탐구 행위의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구성에 있어서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 면에서 분명 객관주의적 과학관을 벗어나 있다. 또한 그의 탐구 논리는 경험분석적 과학이 자연 지배의 기술적 관심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도 아울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식에 있어서 주체의 실천 행위는 결코 도구적 행위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 구체적, 사회적 산물인 이상, 과학의 탐구 논리와 절차에 대한 분석은 이미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 점은 도구적 행위에 축소된 퍼스의 탐구논리 분석으로는 해명되지 않는다.

(q2.1.1.4.2.2) 탐구자의 공동체에 대한 반성은 실용주의적인 영역을 봉괴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탐구자의 대화에 의하여 과학의 진전은

가능한 기술적 처리라는 초월적 관점에서 이행된다. 바로 이러한 자기반성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시한다: 즉 탐구 과정의 주관은 상호주관성이라는 토대에서 형성되는데, 이 상호주관성은 도구적 행위의 초월적 가능성을 능가한다. 탐구자의 대화는 메타이론적인 물음의 대화적 해명에서 기호적으로 매개된 상호작용의 영역에 결부된 인식을 요구한다. 이 인식은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자체의 범주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채로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획득을 위하여 전제되어 있다.(『인식과 관심』, 147쪽)

2.1.2 실천적 관심

(e2.1.2.1) 실천적 관심은 역사해석적 과학을 인도하는 인식적 관심이다. 기술적 관심이 물질적 삶의 차원에서 노동을 통한 자연 지배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면, 실천적 관심은 또 하나의 인간 삶의 차원, 곧 사회문화적 삶의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주관적 이해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 만일 이러한 상호주관적 이해가 붕괴될 경우, 모든 실천 행위의 전제 조건인 강제없는 동의는 확보되지 않는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정신과학의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은 객관화된 현실의 파악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드러내는 상호주관적 이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해석학적 과학에서는 사실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관찰 대신에 의미 이해를 내세우고, 법칙적 가설을 검사하는 대신에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해석학적 규칙이 기술(Beschreibung)의 가능한적인 의미를 규정한다. “해석학적 연구는 행위지향적인 가능성 이해의 상호주체성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지배적인 관심 아래서 현실을 해명한다. 의미 이해는 그 구조상 전승된 자기이해의 틀 속에서 행위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인 인식적 관심과 구별하여 실천적인 인식적 관심이라 부른다.”(위르겐 하버마스, 장일조 역, 『이성적인 사회를 향하여』, 77쪽)

2.1.2.1 딜타이의 해석학적 이해 이론

(e2.1.2.1.1) 딜타이의 해석학은 정신과학의 방법론이다. 정신과학의 객체 영역은 인간종의 사회문화적 삶의 상징적 표현들이며, 이 영역에 대한 인식은 그러한 표현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의 해석학적 이해는 인간종의 사회문화적 체험의 객체 곧 객관정신의 구조와 합법칙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체험은 공적으로 확립된 상징적 구조들, 즉 언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는 언어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상호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해석학의 인식 가능성을 규정하는 인간종의 상호이해의 관심을 하버마스는 실천적 관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의하면 딜타이의 해석학은 이해와 실천 행위간의 관련성을 해석학적 인식의 객관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인식과 관심,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2.1.2.1.1 정신과학의 방법론

(e2.1.2.1.1.1) 실천적 관심에 의해 인도되는 역사적, 해석학적 과학의 전형으로 하버마스는 딜타이의 정신과학을 꼽는다. 딜타이가 말하는 정신과학은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형성되는 문화적인 삶의 연관성을 다루는 과학들을 종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정신과학은 자연적 사실의 영역을 자연과학과는 달리 일차적으로 사회문화적 삶의 내적 연관성을 이해(Verstehen)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딜타이가 강조하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은 삶의 체험(Erleben)과 체험의 표현(Ausdruck), 그리고 표현의 이해가 갖는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신과학의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역사적인 삶은 대체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탐구자는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을 “역지사지”(Transposition)를 통한 추체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체험, 표현, 이해의 연관 관계를 추적하는 해석학적 작업은 단순한 감정이입의 차원을 떠나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체험의 표현은 단순히 타인의 영혼 이해

와 같은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딜타이에 의하면 사회 역사적 삶의 체험의 상징적 표현은 정신이 객관화된 것으로서 정신의 형성 과정이라는 역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는 그 속에 반성의 계기를 내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 이해”(das hermeneutische Verstehen)이다.

(q2.1.2.1.1.2) 전자[자연과학]에서는 인식이 경험에 의해 통제되는 이론이나 개별 법칙적 진술들 속에서 끝나는 반면에, 후자[정신과학]에서는 이론과 기술(Beschreibung)이 추체험을 산출하는 수레의 역할을 할 뿐이다. [...] 자연과학적 절차 방식이 “구성”, 즉 이론의 가설적 기획과 이에 추가되는 실험적 검사를 통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라면, 정신과학은 “역지사지”, 즉 정신적으로 객체화된 것들을 추체험 안으로 밀어넣는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분과학문들은 인식적 실행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된다. 우리는 주어진 사건들을 알려진 초기조건들로부터 법칙 가설들의 도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상징적 연관들은 명시적인 재실행(explizierender Nachvollzug)을 통해서 ‘이해’된다. 설명은 이론문장을 사실에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사실이란 체계적인 관찰에 있어서 이론과 독립해 있는 것으로 확립된 것이다. 반면 ‘이해’는 체험과 이론적 파악이 한데 섞여 있는 작용이다. 인과분석적 절차는 구성을 통해 사건의 가설적 연관을 산출 하지만, 이해[또는 해석] 과학(verstehende Wissenschaft)의 명시적 절차는 항상 객관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하나의 연관 속에서 진행된다.(EI, 183-184쪽)

(q2.1.2.1.1.3) 딜타이는 소박한 감정이입 이론 대신에 체험, 표현 및 이해의 방법론적 연관성에 기반한 모델을 반성 철학에서 빌려 온다. 정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명이 있다. 즉 정신은 자기 자신을 객체로 외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삶의 표현에 대한 반성 속에서 자신으로 귀환한다. 인간종의 역사는 이러한 정신의 형성 과정으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사회화된 개인의 일상적인 실존은 체험, 표현 및 이해의 관계에서 움직이며, 바로 이 관계가 정신과학의 절차 방식까지 구성하는 것이다. 과학에 앞서 의사소통을 하고 역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들의 삶은 불투명하거나 반쯤 투명한 상태인데, 해석학적 이해는 바로 이것을 방법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다.(EI, 187-188쪽)

2.1.2.1.2 자아동일성의 형성

(e2.1.2.1.2.1) 정신과학이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적 삶의 의미 연관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 연관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보면 개인적 삶에도 침투해 있다. 즉 “삶의 연관은 개인적 삶의 역사에 집약되어 있다(integriert).”(Ei, 192쪽) 이 점으로부터 자아동일성(Ich-Identität)의 형성 과정이 밝혀진다. 즉 개인의 자아동일성은 수직적 차원에서는 경험 연관의 누적과 수평적 차원에서는 상이한 주체들 간의 상호주관적 이해의 성립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개개인의 삶의 실존이 일상언어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삶의 단위의 공동성”(die Gemeinsamkeit der Lebenseinheiten)과 전체-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지 집단의 동일성이 개인의 자아동일성에 압축되어 있다는 딜타이의 주장은 개인적 삶의 형성 과정(Bildungsprozeß)이 인간종의 사회문화적 삶의 형성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신과학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문화적 삶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발전이 ‘낯선 자연’에 대한 지배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정신과학의 발전은 ‘낯선 삶의 표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q2.1.2.1.2.2) 삶의 역사는 말하자면 자신을 태어남과 죽음에 의하여 제한된 삶의 과정으로 표현하며 계다가 삶의 과정들을 연결시키는, 그것도 ‘의미’에 의하여 연결시키는 체험가능한 연관성이다.(『인식과 관심』, 159쪽)

(q2.1.2.1.2.3) 자아동일성으로 집약되는 한 개인의 삶의 역사는 전체와 부분의 범주적 관계의 전형이며, 이로부터 의미(Sinn)의 범주가 획득된다. 해석학적 이해의 목표이자 딜타이가 ‘Bedeutung’이라 강조해서 부르는 그 의미는 하나의 연관, 즉 동일성의 봉괴와 극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연관 속에서 계기들이 차지하는 위치들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은 삶의 역사에 대한 회고적 해석이 지속적으로 갱신, 교정되며 누적적으로 확장됨으로써 끊임없이 산출된다. ‘의미’(Bedeutung)는

하나의 관련 체계(Bezugsystem)의 변화가 일종의 형성과정(Bildungsprozeß)일 때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삶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EI, 195쪽)

(q2.1.2.1.2.4) 자서전적 해석의 단계와 같이 누적적인 자기이해를 통해 삶의 역사를 지속시켜 나가는 반성적인 삶의 경험은 항상 ‘다른’ 주관과의 상호이해(Verständigung)를 매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공동의 영역’ 속에서만 나 자신을 이해하며, 동시에 타인을 객체화된 형태 속에서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호주관적으로 구속력 있는 동일한 언어 속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역사는 상호주관성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과정의 산물로 파악될 수 있다. 삶을 경험하는 개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의 형성 과정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신과학적 분석의 준거들로 추천되었던 개인의 삶의 역사는 이제는 포괄적인 구조·연관과 사회 체계의 기능으로 파악된다.(EI, 197쪽)

2.1.2.2 해석학적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

(e2.1.2.2.1) 하버마스는 딜타이의 정신과학 방법론이 해석학적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즉 딜타이는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를 가능한 인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학의 과학적 특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딜타이의 해석학은 순수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 속에서 실증주의와 유사하게 객관주의로 전락한다. 그 결과 정신과학의 기능은 객체 영역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차단된 채 그것을 기술하는 데 제한된다.(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310쪽) 하버마스는 이와 반대로 해석학이 오히려 이해와 실천 행위의 관계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천적 인식 관심이 해석학의 차원을 선형적으로(a priori) 규정한다면 과학의 객관성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험분석적 과학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의 경우에도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이 비로소 가능한 인식의 객관성을 확립시키기 때문이다.

(q2.1.2.2.2) 실천적인 삶의 연관과 과학적인 객관성의 대립으로 딜타이에게는 실증주의가 은밀히 관철된다. 딜타이는 해석학적 이해를 초월적 영역에 뿌리박고 있는 관심 연관(Interessenzusammenhang)으로부터 제거하여 순수 기술(reine Beschreibung)의 이상에 따라 관조적인 것으로 옮기고자 한다. 퍼스도 그랬듯이 딜타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실증주의의 폭력을 굴복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과학의 자기반성에 있어서 실천적 인식 관심을 가능한 해석학적 인식의 훠손이 아니라 그 토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객관주의에 추락하기 때문이다.(EI, 224-225쪽)

(q2.1.2.2.3) 정신과학은 해석학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논리를 해석학의 실행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즉 해석학은 역사의식의 확장과 도처에 있는 역사적 삶의 미학적 현전에 기여하는 보조 학문이다. 인식론으로서의 방법론이 과연 인간종의 심오한 역사적 경험을 재구성하는가, 그리하여 인간종의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반성 단계에 이르는가 하는 점은 두 사람[퍼스와 딜타이]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언급되지 않는다.(EI, 262쪽)

2.1.3 해방적 관심

(e2.1.3.1) 인식과 관심의 연관성 테제의 핵심 내용은 가능한 인식의 선형적 조건이 인간종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에 상응하는 실천적 행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험분석적 과학과 역사해석적 과학이 인간 삶에 있어서 자연 및 인간과의 원활한 교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심에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인간종 및 개인의 형성과정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판과 자기반성의 계기가 들어 있어야 한다. 객관주의로 경도된 실증주의와 해석학은 과학의 객체 영역을 인식 주관의 반성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인간종의 실천적 삶의 맥락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과제를 수행하는 제 3의 인식 유형, 곧 비판지향적 과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그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과학 또한 인식적 관심 이론에 따라 3의

관심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 관심을 “해방적 관심”이라 명명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율(Autonomie)과 성숙(Mündigkeit)에 대한 이성의 계몽적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다. 비판지향적 과학이 인간중의 형성과정 속에 들어 있는 지배와 억압,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행위의 요인들을 분석, 그러한 형성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가능한 왜곡 구조를 폭로하고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과학적 인식은 지배와 억압, 이데올로기 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방적 관심에 따른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q2.1.3.2) 내 생각에 반성의 해방적 힘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발생의 역사에서 자신을 투명한 상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성의 경험은 내용적으로는 형성 과정의 개념 속에서 드러나며, 방법적으로는 이성과 이성에의 의지가 강제 없이 동일화되는 출발점이 된다. 자기반성 속에서, 인식을 목적으로 삼는 인식은 성숙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반성의 실행은 자기 자신을 해방 운동으로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성은 이성에 대한 관심 아래에 있다. 이성은 반성의 실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해방적 인식 관심’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EI, 243-244쪽)

2.1.3.1 반성적 이성의 관심으로서의 해방적 관심

(e2.1.3.1.1) 하버마스는 인식과 관심의 참된 통일은 해방적 관심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인식과 관심의 참된 통일은 “이성이 반성 자체를 수행하려는 해방적 인식 관심을 따를”(EI, 244쪽)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식과 관심을 연관시키는 것은 반성적 능력을 지닌 이성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험분석적 과학의 기술적 관심과 역사해석적 과학의 실천적 관심이 자신의 내부에 반성의 계기를 갖고 있다면, 그 깊은 그러한 관심들이 반성 능력으로서의 이성이 갖는 해방적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의 탐구 논리와 딜타이의 해석학적 이해의 방법은 이러한 해방에 대한 이성의 관심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주의로 경도되었다.

(q2.1.3.1.2) 퍼스도 딜타이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찰하지 못하였다[즉 과학적 인식이 관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관심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찍이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전개한 반성의 경험(Erfahrung der Reflexion)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반성이 지닌 해방적 힘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주체는 자신의 발생의 역사에서 투명하게 될 때 그러한 힘을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반성의 경험은 내용적으로는 형성 과정의 개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것은 또 방법적으로는 이성과 이성에의 의지의 동일성이 강제 없이 이루어지는 관점에 도달한다. 자기반성 속에서 인식은 인식을 위하여 성숙에의 관심과 일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반성의 실행은 스스로를 해방 운동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성은 이성에의 관심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이성이 반성 자체를 수행하려는 해방적 인식 관심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EI, 243-244쪽)

2.1.3.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e2.1.3.2.1) 하버마스에 의하면 비판지향적 과학의 목적은 과학의 방법적 자기반성을 용이하게 하고 삶의 자기의식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지양하는 데 있다. 인간종의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들을 해체하려는 관심이 곧 해방적 관심이다. 정신분석학은 병리적 차원에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개인들의 형성과정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은 인간종의 해방적 관심과 이것에 의해 인도되는 과학의 방법적 자기반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1.3.2.1 심층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

(e2.1.3.2.1.1) 해방적 인식 관심에 의해 유도되는 인식은 비판지향적 과학, 즉 비판적 사회과학이다. 하버마스는 그 모델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신분석학은 비판적 사회과학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들과 반성적 과학의 논리를 제공해준다. 정신분석학은 병리적인 차원에서 자기반성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의 자기형성적

과정을 탐구하는 해석틀을 빌전시킨다. 하버마스는 이 해석틀을 “심층해석학”(Tiefenhermeneutik)이라 부른다. 심층해석학은 정신병리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피분석자의 삶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에서 분석자는 피분석자의 상징적 표현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내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정신 병리에 인과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석자는 피분석자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억압되어온 자기 삶의 역사를 의식하도록 해준다.

(q2.1.3.2.1.2) 우선 정신분석학은 단지 해석의 특수한 형식(eine besondere Form der Interpretation)으로 등장한다. 정신분석학은 상징적 관계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기술적 규칙을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의미를 언제나 언어학적인 작업의 해석학적 표본에 방향을 두었다. [...] 그러나 분석가의 의미 작업은 특수한 객체 영역의 분류에 의해서만 언어학자의 의미 작업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가의 의미 작업은 흔히 알려진 [가령 딜타이의] 정신과학적 해석에 대립하여 새로운 차원을 고려하는, 특수하게 확장된 해석학을 요구한다.(『인식과 관심』, 216-217쪽)

(q2.1.3.2.1.3)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주체의 자기기만이 들어 있는 상징 연관을 취급한다. 프로이트를 문헌학자 딜타이와 대립시키는 심층해석학은 ‘작가의 자기기만’을 암시하는 텍스트와 관련이 있다.(EI, 267쪽)

(q2.1.3.2.1.4) 이에 반하여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의식적으로 의도된 차원의 의미 연관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비판적 작업은 우연적인 결합들을 제쳐두지 않는다. 그것이 제거하는 생략과 왜곡은 체계적인 위상을 갖는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이 파악하려는 상징 연관들은 ‘내적인 영향’(interne Einwirkungen)으로 손상되기 때문이다. 훼손도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손상된 텍스트는 훼손의 의미가 성공적으로 해명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이 점은 문헌학의 절차 방식에 제한되지 않고 ‘언어 분석과 인과 연관의 심리학적 탐구를 통일시키는’ 해석학의 고유한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EI, 266쪽)

2.1.3.2.2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구조

(e2.1.3.2.2.1) 하버마스는 심층해석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메타심리학 또는 메타해석학의 단계. 이 단계는 정신분석학적 인식의 조건들, 즉 분석자와 피분석자의 의사소통 형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기본 범주들을 사용하여 분석 상황에 대한 ‘해석의 논리’를 제공한다. 둘째, 일반적 해석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메타해석학의 틀 내에서 자아형성 과정에 대한 ‘경험적, 실질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석은 임상 경험의 결과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일반적 해석은 경험과학에서의 이론과 유사한 기능을 떠맡는다. 셋째, 치료적 의도를 갖는 개인적 삶의 역사의 재구성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한편으로 일반적 해석 체계와 다른 한편으로 분석적 대화를 통해 얻어진 단편적인 정보들을 사용하여 피분석자의 삶의 실제 사건들을 종합한다. 물론 이렇게 재구성된 개인의 삶의 역사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설은 경험분석적 과학에서처럼 관찰에 의해서도, 역사해석학적 과학에서처럼 합의에 의해서도 테스트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에서의 검증은 피분석자가 재구성된 자기 삶의 역사를 의식적으로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피분석자의 자기반성을 비로소 성공적인 것이 된다.(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321-322쪽)

(q2.1.3.2.2.2) 일상 언어와 상호작용의 병리적 연관에 관계되고 언어 이론에 기초한 구조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 근본 가정을 위해 메타심리학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메타심리학은 하나의 경험이론이 아니라 메타이론, 아니 심리분석적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해명하는 메타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 메타심리학은 ‘분석적 대화상황에서 해석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한 한 메타심리학은 자연과학 및 정신과학의 방법론과 동일한 차원에 있다. 즉 메타심리학은 분석적 인식의 초월적 구조를 하나의 조직화된 탐구 과정 – 여기서는 자아 탐구 과정 – 의 객관적인 연관으로 반영한다.(EJ, 310쪽)

(q2.1.3.2.2.3) 오직 전제된 메타심리학만이 [형성 과정의] ‘체계적 일 반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야기’(Historie)로 머무 를 것이다. 메타심리학은 언어 훠순과 행동 병리의 연관성에 적용되는 일련의 범주 및 근본가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전개되는 일반적 해석들은 다양하고 반복되는 임상 경험의 결과이다. 즉 이 해석들은 순환 적으로 유지되는 해석학적 선취의 탄력적인 절차에 따라 획득되는 것들이 다.(EI, 316쪽)

2.1.3.2.3 정신분석학에서 이해와 설명

(e2.1.3.2.3.1) 하버마스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주목하는 부 분은 일반적 해석의 구성 문제이다. 정신분석학에서의 해석은 해석학에 서의 해석과 달리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는 설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신분석학은 신경증을 일련의 법칙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 2의 자연’으로 이해한다. 설명의 역할은 왜곡된 자기이해와 확고한 자기의식 을 매개하는 일인데, 이러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는 성취될 수 없다. 즉 삶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설명은 제 2의 자연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 입된다. 정신분석학에서 이해와 설명의 상보적 관계는 이처럼 피분석자 의 자기이해와 그의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이다. 치료가 성공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분석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피분석자의 자기이 해와 일치할 것이므로 설명은 더 이상 의미의 회복에 불필요한 것이 된 다.(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322-323쪽)

(q2.1.3.2.3.2) 우리가 일반적 해석에서 도출하는 가설은 일반 이론의 가설처럼 자연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객체화에 의해 제 2의 자연 이 된 영역, 즉 무의식(das Unbewußte)과 관계한다. 이 용어는 해석의 맥락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제들을 총칭하 는 말이다. 이를 강제는 사회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욕구 성향들로부터 출 발하며, 그것들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는 상황과 언어 및 행동이 비정상적으 로 이루어지는 상황간의 인과적 연관성 속에서 입증될 수 있다. [...] 어떻

든 메타심리학은 방어, 상징 분열, 동기 억압 등에 관한 메커니즘과 이를 보완하는 자기반성 실행 방식에 관한 가정들, 즉 운명의 인과성이 발생하고 폐기되는 것을 ‘설명하는’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다.(*EI*, 330-331쪽)

(q2.1.3.2.3.3) 무의식의 인과성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분석’의 치료적 효과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석’이라는 단어에서 인식으로서의 비판과 변화로서의 비판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과 분석은, 그것이 파악하는 ‘경험적’ 연관(empirischer Zusammenhang)이 동시에 문법적 규칙에 따라 재구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 ‘지향적’ 연관(intentionaler Zusammenhang)인 한에서만 비판의 직접적인 실천적 결과를 획득한다. [...] 하나의 ‘인과적 연관’은 가설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해석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의미 연관’으로 정식화된다. 이러한 정식화는 [왜곡의 징후가 포착되는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적 가설과 해석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심층해석학적 이해는 설명의 기능을 떠맡는다. 그것은 이해되고 동시에 설명된 객체를 지향하는 자기반성 속에서 그 설명력을 유지 한다. (*EI*, 331-332쪽)

참 고 문 헌

1. 하버마스 원전

Habermas, Jürgen, *Erkenntnis und Interesse. Mit einem neuen Nachwort*, Suhrkamp Taschenbuch Wissenschaft 1, 2. Auf.,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4.

2. 하버마스 원전 국내 번역본

강영계 역, 『인식과 관심』, 고려원 문화총서 7, 고려원, 1983.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4.

장일조 역, 『이성적인 사회를 위하여』, 종로서적, 1980.

3. 국외 이차문헌 및 번역본

Held, Davi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Horster, Detlef, *Habermas zur Einführung*, Zur Einführung 111, Junius, 1995.

McCarthy, Thomas, *The Critical Theory of Jürgen Habermas*, The MIT Press, 1978.

빌터 래제-쉐퍼, 선우현 역, 『하버마스. 철학과 사회이론』, 거름아카데미 006, 기획출판 거름, 1998.

4. 국내 이차문헌

장춘익 외,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신서 457, 나남출판, 1996.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팡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혀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나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해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항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며 『진리와 방법』 1 / 정은해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2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9 788991 280786

ISBN 89-91280-78-1